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흠을 애써 찾지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라.
자신을 잘 단속해 자신을 살펴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현불회·구독신청 02-2004-8212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9일)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불교문화대전 폐막… 언론 · 음악 · 출판상 첫 통합 시상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2 불교문화대전 폐막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돼 진행된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음악상 시상식은 불교문화대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올해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은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불교언론 발전에 공적이 큰 인물을 시상하는 불교언론인상은 고성 영은암 회주 정휴 스님이 수상했다. 제6회 불교음악상 '올해 불교음악인상'은 삼귀의 · 사홍서원을 작곡한 최영철 작곡가가,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윤소희의 〈세계불교음악순례〉가 각각 수상했다. 사진은 내빈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스무살 된 템플스테이 경쟁력 · 인력 강화 필요"

조계종 · 국회 정각회,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세미나

템플스테이 20년 성과, 과제 짚어
운영사찰 33곳서 142곳으로 증가
참가 연인원은 600여만 명 돌파해
韓문화 세계화, 국민 힐링 등 성과
특화된 콘텐츠 육성 · 마케팅 필요
템플스테이 운영인력 전문화 요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20살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운영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홍익표)는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템플스테이 2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이 주관했으며, 템플스테이 20년과 사찰음식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과제들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 국가브랜드 제고 기여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템플스테이 2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2년 33개소로 시작한 템플스테이는 2022년 총 142개소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참가자는 2002년 시작 이래 누적 순인원 참가자는 299만 명을 넘어섰고, 연인원은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수치적 발전 이외에도 전 교수는 유 · 무형적 성과를 분석 · 제시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한국문화 세계화 △국민행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템플스테이가 성과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는 2009년 OECD에서 '세계의 성공적인 5대 관광상품'으로 선정됐고, 독일ITB국제관광박람회 · 프랑스 MAP 등에서 2008 · 2009 · 2011년 3회에 걸쳐 아시아-오세아니아주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2013, 2015년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성인과 청소년에게 있어 템플스테이는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었음을 상기시킨 전 교수는 "템플스테이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로서 템플스테이는 사회공익 · 나눔 실천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는 2004년 신륵사와 범어사에서 시작됐으며, 2017년부터 운영 사찰과 관련 프로그램들이 급증했다. 전 교수는 "문화사업단은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운영 사찰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 공익 템플스테이를 발굴하고 자체 운영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운영 사찰 중심의 공익템플스테이 운영 기반 확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숫자로 보는 템플스테이 20년

- **2002. 5. 11** 직지사 주한외교사절단 템플스테이(첫 템플스테이)
- **33개소** 2002년 시작 당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 **142개소** 2022년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예비 지정 2개소, 외국인 전문사찰 28개소)
- **1554개** 운영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방사 (2020년 기준)
- **205개국** 외국인 참가자 국적
- **650,000명** 외국인 참가자 수(2002~2021)
- **6,000,000명** 템플스테이 연인원 참여자

템플스테이 발전 어떻게?

템플스테이 발전 5대 전략 과제와 10대 세부 실행 과제도 제시됐다. 전 교수가 제시한 전략 과제는 △콘텐츠 및 마케팅 경쟁력 강화 △조직 경쟁력 강화 △사업 기반 고도화 △사회공익활동 기반 강화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이다. 콘텐츠 특성화를 주문한 전 교수는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사찰의 환경, 특성, 운영인력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특성화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테라하쿠, 마이데라 등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유사 템플스테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 · 홍보를 위해 순수 방한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나눠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메타버스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안정화와 전문화도 주요한 발전 과제로 꼽혔다. 전 교수는 "그간 문화사업단의 지원은 분배에 가까운 형태였다"면서 "앞으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한 우수 운영 사찰에 대해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템플스테이 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하고 불교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유 · 무형 전통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운영사찰 실무자들의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해설사 등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망경산사 주지 하원 스님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예약시스템 구축과 MZ세대를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 운영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원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중 MZ세대의 비율이 52.8%에 달할 정도로 높다"면서 "월 1~2회 MZ세대만을 위한 잔디밭 요가, 마음챙김 명상, 불멍, 인생샷 찍기 등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행복과 치유의 플랫폼으로 템플스테이가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심 교수는 "이전의 템플스테이가 전통문화체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체험콘텐츠 개발, 운영인력의 전문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 연대, 사회 공익활동 확대 등의 화두를 들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찰불교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된다

'신도전문교육기관령' 개정안 입법예고

팬데믹에 운영기준 미달 증가
운영기준 완화, 유인책 마련도
수행, 봉사도 교육으로 인정
11월 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이하 불교대학) 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 자율성이 강화된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기관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급증, 이에 대한 보완 차원의 정책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17일 종단 공고를 통해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교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와 불교대학 인가, 졸업, 휴교 등 각종 행정상 규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 기간 신도들의 사찰 방문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찰 불교대학은 사실상 휴교 상태였다. 일부 사찰이 유튜브 강좌 등을 통해 임시 방편으로 불교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교 및 재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조계종 불교대학이 휴교를 2년 이상 못하도록 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또는 포교원장 승인을 예외로 휴교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 기간 각광 받은 온라인 강좌 및 최신 트렌드에 맞는 커리큘럼 구성 등 자율성 확대, 불교대학 입학 동기부여를 위한 사찰 문화해설자격증 발급 등도 함께 담겼다.

특히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제기된 96시간의 수업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영해 64시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 수련회 · 성지순례 · 철야정진 · 특강과 봉사활동 등을 16시간만 인정한 데에서 16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신행경험도 교육으로 인정토록 했다.

포교원 측은 "신도전문교육기관은 신도 교육을 담당하지만, 사찰 신도 유입을 유도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찰 현실을 반영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찰로 신도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교대학 운영에 관한 제도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휴교나 폐교를 고민하는 사찰들이 운영 규제 완화와 자격부여 등을 바탕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신도 교화에 관한 령'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두 개정안은 포교신도단체 신도에 대한 교화, 징계를 비롯해 임원 · 회원 보고 의무화 등 관리 강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려복지, 통합시스템으로 확대 실현

불교중흥 위한 새 집행부 과제

③ 승가복지 실현

7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공표
'출가에서 열반까지' 실현 관건
요양병원 건립불사, 인수 검토
"장기적인 관점서 신중히 결정"
전국 각 교구 복지체계도 확산
상호협력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재원 마련 위한 수익구조 확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존경받는 승단! 승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7대 주요 종책공약 가운데 하나가 승가복지다. 고령화 사회에 종단 스님들의 소득과 의료, 주거복지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으로 수행 ·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는 일성이다.

이미 조계종은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치료비 지원 등 핵심적인 복지시스템이 안착된 상황인 만큼, 37대 집행부에 주어진 과제는 승가복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할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전국 교구로의 확산, 실현가능한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꼽힌다. 여기에 병환으로 고통 받는 스님들이 치료와 수행을 병행하며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불교요양병원 건립 불사도 종단 숙원과제로 남았다.

특히 승려복지의 전국 교구 확산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동시에,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필수적인 분야로 지적된다.

현재 교구본사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승려복지규정을 제정한 곳은 월정사와 직지사, 해인사, 화엄사, 선운사와 봉선사 등이다. 또 신흥사와 해인사, 고운사, 봉선사는 본사 대중들을 위한 수행연금을, 영주사와 월정사, 마곡사, 화엄사가 선방 수좌스님들의 수행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와 해인사, 화엄사는 주거복지도 시행하는 등 일부 교구를 중심으로 승려복지 발전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승려복지는 교구차원의 관심과 의지, 여건에 따라 격차가 큰 만큼, 교구별 편차를 좁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불교요양병원 건립불사의 경우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이었던 '백만원력결집불사'의 하나로 포함돼 추진해 온 만큼,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주변부지를 대상지로 정하고 올해 1월 등기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동시에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건물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종단의 오랜 숙원과제인 불교 요양병원 설립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내용은 진우 스님이 취임 직후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처음 알려졌다. 스님은 "모처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 인수요청이 들어와 이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의 운영법인에서 "조건 없이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이에 대한 실무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총무원 측은 불교 요양병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건물 노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이 종책공약에서 밝힌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도 핵심과제다.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승려복지의 기본목적인만큼, 의식주를 넘어 교육과 수행비, 의료, 장례(다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승려복지의 핵심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빈틈없는 지원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시스템을 완비하는데 있다. 중앙과 교구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원활한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이유다.

안정적인 재원이 지속가능한 승려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은 이견이 없다. 이와 함께 종단과 교구 차원에서 승려복지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재가불자들이 승가 외호의 일환으로 승려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교구본사 차원에서는 재정적 토대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종단 차원에서도 승보공양 후원과 자부담, 특별분담금 외에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우 스님 역시 "종단 차원의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삼보정재 유출을 막고, 그 수입을 승가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승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가능했던 승가공동체의 우수한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7일 '10 · 27법난 제42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

10 · 27법난 42주년…"추념관 건립 최선"

조계종, 10월27일 추모법회
정부에 피해자 진실규명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10.27법난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동참자들은 법난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추념관 건립과 진실 규명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원장 진우)은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10 · 27법난 제42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법난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념사에서 "종단은 위법망구 정신으로 10 · 27법난으로 인해 실추된 불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제 소명을 다해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하고 10 · 27법난 추념사업 주요 과제인 추념관 건립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법난 피해자모임회장 명선 스님은 피해자 스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선 스님은 "우리 종단이 화합해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추념관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법난 극복과 승화를 위한 불교 명예회복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추념법회에서는 10 · 27법난 42주년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국승려문예공모전과 추념곡공모전 시상도 진행됐다. 문예공모전 대상은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蓮根이여, 蓮根이여-10 · 27법난을 상기하며'가 차지했다. 임은호 기자

2023년 IBYE 유치 쾌거

대불청, WFBY이사회서
하반기 경북서 개최 예정

대한불교청년회가 2023년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이하 IBYE)를 유치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국 방콕 마하마컷 불교대학에서 열린 제21차 세계불교청소년도우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이하 WFBY) 총회에 참석, 대만과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등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3년 IBYE 한국개최를 성사시켰다.

IBYE는 매년 WFBY 회원국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국제행사로 대불청은 2023년 하반기 경북지역에서 IBYE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장정화 중앙회장이 11명의 WFBY 부회장 중 한명으로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기도하는 불자 원력이 불교중흥 토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10월 25일
조계사 초하루 대중법문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첫 대중법문을 통해 "기도하는 불자가 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일후보로 합의추대된 첫 총무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화합과 불교중흥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전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25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했다.<사진> 이날 스님은 "불교중흥과 종단 발전, 모든 불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포교불사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총무원장으로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불자들에게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이 모여 한국불교 중흥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마음과 내 업에서 비롯됨을 알고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나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에도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 입불은 현재의 부처님이자 미래의 부처님이기에, 우리 불교의 미래 천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도록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적십자사 · 불교, 경계 없는 자비 공통점"

진우 스님, 10월 24일
신희영 회장 예방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24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예방을 받고 "종교와 사상,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대한적십자사의 나눔행보는 불교의 평등, 자비, 봉사정신도 맞닿아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호협력과 더욱 활발한 행보를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이날 신희영 회장에게 "적십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근본 바탕은 바로 인류애"라며 "불교계도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소중한 기금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적십자사의 로고는 십자가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빨간 반창고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적십자사 기금을 살펴보면 불심에 기반한 후원이 상당히 많고 이미 25년째 소아암환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목 스님 등 불교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신 회장은 "소아암 환아들이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한 후 다시 후원자로 인연을 맺기도 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자들이 후에 적극적으로 후원의지를 밝히는 사례도 많다"며 "우리 사회의 선순환이 가능한 근간에 국민들의 따뜻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순환의 구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대한적십자사 윤희영 부회장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봉 태고종 제8대 총무원장 남허당 대종사 사리탑비 제막 행

남허당 남현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지 43년만인 불기 2566(2022)년 10월 7일 순천 선암사에서 사리탑비를 제막했습니다.
사리탑비 제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문도 스님들과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많은 종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남허화상문도회 일동 (회장 지홍·총무 지상)




남허당 남현 대종사 행장

△1917년 탄생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해월 화상(대륜 화상 맏상좌)을 은사로 득도 △유점사 강원 졸업 △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및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졸업 △고성 통천중학교 교장 역임 △홍천 수타사 주지(고아원 운영) △통합조계종 총무원 부장 등 역임 △1970년 중앙종회 의장 역임 △1974년 태고종 제8대 총무원장 선출 △1978년 태고종 총무원장 재임 △1979년 11월2일 법랍 46세, 세수 63세로 입적



韓불교, 우크라이나 난민 '트라우마 치유' 나선다

아름다운동행, 명상 공간 임대비 등 지원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
9월 '트라우마 힐링선원' 개원
난민 대상 심리 치료 등 실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에서 출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스님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트라우마 치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 공간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불법을 알리는 장소로 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은 지난 8월, 동행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경 르비브(Liviv)지역에 '트라우마 힐링 선원'을 마련하고 9월부터 운영 중이다.

2013년 화계사에서 출가, 2016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원학 스님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출국,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창고를 담당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얼마 후 우크라이나 경영학교에서 전쟁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 요청이 들어왔고 낮에는 창고 일을, 저녁에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명상으로 통해 사람들을 돕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우크라이나 국경 르비브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장소를 찾지 못해 도심 속 공공장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8월 17일, 아름다운동행이 1000만 원(약 7403 유로)을 지원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고 장비 구매, 인터넷 설치 등 준비 이후 9월부터 이곳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명상, 법요 의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명상 뿐 아니라 매주 주말 전문 심리치료사와 함께 그룹치료와 테라피 수업도 실시한다. 참여자의 절반은 러시아군에 의해 대거 파괴된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피난민들로, 이들은 명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꾸준히 이어온 원학 스님의 활동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트라우마 힐링 선원'에서 수업을 듣고 전장에서 명상을 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아름다운동행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경 르비브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트라우마 힐링 선원'. 한국에서 출가한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아름다운동행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 원학 스님은 "조계종에서 출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덕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었다"며 "가르침을 준 모든 스님들께 존경을 표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준 한국 불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치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최근 우크라이나 가톨릭 대학 심리학 프로그램도 신청, 10월부터 트라우마 힐링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원학 스님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국민들이 수시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한국 스님들에게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전쟁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국 불교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라며,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지원금 40만 불을 전달한 바 있다. 동행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후원받고 있다. 홈페이지(www.dreaminus.org) 참조. 02)737-9595

30주년 경찰청불자회, '국민신뢰' 발원

10월 27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사회와 국민안전에 매진해 온 경찰청 불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경찰청 불자회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이자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경찰청 경승 선업 스님(포교원 포교부장)과 효신 스님 등을 비롯해 김준영 경찰청 불교회장(기획조정관), 모상묘 서울청 불교회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가수 김흥국씨도 참석해 특별한 소회를 전했다. 경찰청 불자회가 법당을 처음 마련하던 당시 불자가수회장 소임을 맡았던 김 씨는 불자가수들의 원력을 모아 법당 소종(小鐘) 불사금을 전달한 인연이 있다.

길민성·한진이 부회장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에서 경찰청불자회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해 암흑과도 같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굳은 의지를 갖도록 광명으로 비춰 이끌어 달라"고 서원했다.


경찰청 불자회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 하루가 고되고 힘겹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와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배워 나가고 있다"며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희망이 꽃피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청 불자회는 1989년 불자직원 모임인 '연꽃모임'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1992년 경찰청 남관 지하에 법당을 개원해 불자직원들의 신행과 원만한 직무를 위한 쉼터역할을 해 왔으며, 2009년 같은 건물 2층으로 위치를 옮겨 현재 '수심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행복바라미, 신라·백제불교 뿌리 찾는다

10월 27일 조계사서 개막식
모연 함께 초전법륜지 조명

거리모금을 통해 자비를 전했던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이 신라·백제불교 뿌리 찾기로 외연을 넓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10월 27일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무형문화재 이방호 목조각장의 목조각 체험, 정성길 단청장의 단청그리기 체험 등도 진행됐다.

주윤식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중앙신도회장)은 "행복바라미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행복바라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고립됐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영호남 불교의 뿌리를 찾는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행복바라미 행사가 다시 시작돼 기쁘다"면서 "올해는 나눔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본래 취지와 더불어 지치고 힘들었을 국민들을 위로하는 문화행사들도 열린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백제불교와 신라불교 최초도래지를 조명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개막 선포식에서 모금함에 기금을 보시하고 있다.

11월 13일에는 경북 구미 신라불교초전법륜지에서 '2022 신라불교 발상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걷기 행사에서는 108인으로 구성된 아도화상 전법순례단이 아도화상 전법의 길을 걸으면서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파한 아도화상의 숨은 포교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10월 19일에는 전남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서 '2022 백제불교발상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복바라미 모금과 전통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자비원, 광명 다목적강당 준공

전국비구니회, 10월 26일 준공식
가야면 광명노인요양원 앞 신축
지목 현실화 협의 성과도 눈길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다목적강당을 새롭게 건축해 가동을 시작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26알 광명노인요양원 앞에서 해인사자비원 광명다목적강당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이자 해인사자비원 대표이사 본각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과 수석부회장 현정 스님, 부회장 성본 스님, 사회복지부장 도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하재국 가야면사무소 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야면 광명노인요양원 앞에 위치한 다목적강당은 2022년 4월 건립에 착수해 올해 8월 마무리됐다. 애초 해당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지만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던 문제를 바로잡고, 지목 현실화를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면서 이번 불사가 시작됐다. 2021년 7월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농지의 지목변경을 추진했으나 농지법상 한계가 드러나 합천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지로 변경 후 노유자시설로 재탄생했다. 다목적강당은 향후 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해인사자비원에 거주하는 비구니스님들,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인사자비원 광명다목적강당 준공식.

본각 스님은 "다목적강당 건립에 마음을 함께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감개무량한 심경을 전했다.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을 인수할 당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명요양원과 해인사자비원에 비구니 스님만 90여분이 계시기에 우리 전국비구니회가 외면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맡게 됐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번듯한 다목적강당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6일(일) 오전 10시 40분
◈ 장 소 :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
◈ 내 용 : 움직임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불교상담개발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사부대중 평화통일 염원 금강산 신계사 닿길”

민추본,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 봉행
“교류의 활성화 · 평화 통일” 기원

고성=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성 통일전망대에 남북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는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미륵대불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과 고성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민추본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박광용 고성군 부군수, 관할부대장인 이승오 22사단장, 민추본 회원, 고성군내 불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 염원과 함께 남북불교 교류의 최대 성과인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 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는 당초 금강산 신계사 현지에서 남북불교계가 함께하는 합동법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 가는 길목이자 금강산 조망이 가능한 통일전망대에서 열리게 됐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통일전망대서 기념법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월우 스님은 “통일전망대는 먼발치에서나마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1984년 문을 연 분단의 현장이고 2003년 금강산 가는 육로가 열렸을 때 처음 출발했던 역사적인 곳”이라며 “막힌 길은 뚫어야 하고 끊어진 길은 이어야 하듯 막히고 끊어진 군사분계선 상의 길을 부처님 원력으로 다시 잇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0월 27일,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미륵대불 앞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월우 스님은 이어 “다음번 기념법회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 불교도가 함께 모여 부처님 앞에 평화와 통일을 서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불교계는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조계종은 그해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봉행 후 한두차례 서신을 주고받긴 했으나 함께 행사를 개최할 순 없었다. 이후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불교계 역시 한국불교계와의 교류 단절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건봉사 주지이자 민추본 강원지역본부장 현담 스님은 “국제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도 경색되고 있는 지금, 신계사 복원과 같은 전통문화 복원과 민족협업을 통한 남북한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박광용 고성부군수도 하루속히 금강산이 다시 열려 금강산과 신계사를 다시 찾고, 다양한 사업으로 남북이 하나되길 간절히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통일과 평화 기원 의미가 담긴 기와불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금강산 신계사 보수에 사용될 기와에 소원문을 작성하는 불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신계사 복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화해의 악수로 역사의 깊은 골을 메우고, 상생의 나무로 한반도의 푸른숲을 가꾸고, 분단의 철책 위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온 누리 수승한 공간마다 통일도량을 함께 세우며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민추본은 법회와 함께 통일전망타워 4층 전망대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그리고 금강산 4대 사찰을 주제로 한 기념사진전을 개막했다. 동참자들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정과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한 사진전을 둘러보며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화합을 염원했다. 사진전은 11월 2일까지 열린다.

욕심 줄이고, 베품 늘이는 다례재 봉행

의왕 청계사 10월 25일
‘5대선사 추모다례재’ 개최

성행 스님의 5대선사 오도송 낭송
3부 전통공연서 문화재활용사업도
신중도 비파연주 재현 “지역상생”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사진 두 번째) 등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부도탑전 탑돌이를 진행하고 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가 ‘선풍 진작’을 위한 5대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특히 3부 ‘소욕다시 전통문화공연’에서는 청계사 문화재 중 하나인 신중도 속의 비파공연을 재현한 ‘비파천인들의 노래’ 공연이 펼쳐져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의왕 청계사는 선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 선사의 출가사찰로, 청계사는 음력 10월 초하루마다 경허-만공-보월-금오-월산 선사의 선맥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5대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해오고 있다.

10월 25일 열린 ‘5대선사 추모다례재’는 1부 다례재, 2부 부도탑 헌다례 및 탑돌이, 3부 소욕다시 전통문화공연의 총 3부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펜데믹 종식을 축하하듯이 300여 대중이 모여 선사들의 가르침을 기렸다.

1부 다례재는 명종 10타를 시작으로 청계사 육법회의 육법공양,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무상행 신도회장의 추모사 낭독, 성림합창단의 추모가와 청법가, 주지 성행 스님의 법문 및 5대선사 오도송 낭송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지 성행 스님은 직접 경허 선사 등 5대 선사 오도송을 낭송하며 대중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성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5대선사 다례재에 ‘소욕다시’라고 명명한 것은 욕심은 적게 내고, 베품은 많이 하라는 의미”라며 “5대선사의 가르침 대로 항상 욕심을 내지 않고, 지역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베풀고자 다례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다섯 선사들이 내린 가르침은 철저한 수행과 자기 주체를 잘 본받아 수행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선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이나마 흐트러짐 없는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선사 오도송 낭송은 성행 스님이 오도송을 낭송하면, 이를 성림합창단이 음성공양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중들은 5대선사 탑비가 모셔진 부도탑전으로 자리를 옮겨 2부 ‘부도탑 헌다례 및 탑돌이’를 진행했다. 3부 ‘소욕다시 전통문화공연’에서는 비파합주 ‘비파천인들의 노래’ 공연으로 시작됐다. 비파합주에 참여한 이들은 일반인들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청계사 신중도에서 나의 아이템 찾기’ 프로그램 이수자들이다.

이들은 직접 배운 비파를 연주하며 합창단과 함께 가을 산사를 장엄하는 선율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활동 ‘본격화’

10월 27일 창립총회 개최
임원 선출, 회칙 제정 결의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지난 6월에 창립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임원진 구성과 회칙 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불자회는 주요 임원진과 증명, 총재, 지도법사 등의 진용 구성을 완료했다. 증명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재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지도법사단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종회의원,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 맡았다. 고문단으로는 여성 원로 재가불자들로 구성된다.

전국여성불자회장은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이, 수석부회장은 이연화 前 은해사 신도회장이 맡았으며, 전국 교구신도회 회장 · 부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장단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성 불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국 신도 조직을 만들어줘 감사하다. 정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우선 상호간 소통이 잘 되는 게 제일인 것 같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테니 회원 여러분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의 얼굴”이라면서 “불교를 책임지는 여성으로서 지역과 교구에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남허당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 43주기 다례재



남허당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식 및 43주기 다례법회가 봉행된 뒤 문도 스님들과 참석 대중들이 새로 건립된 부도탑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0월 7일 선암사 제2부도전서 봉행
제 8대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해
선암사 종권수호, 후학양성 앞장서

한국불교태고종 제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남허당 남현 대종사〈사진〉 부도탑비 제막식 및 43주기 다례법회가 10월 7일 오전 순천 선암사 제 2부도전에서 봉행됐다.

남허화상문도회(회장 지홍 스님, 법륜사 주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과 문도 스님들이 동참해 남허 대종사의 생전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남허화상문도회 회장 지홍 스님은 “남허당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지 반세기 만에 부도탑비를 제막하게 돼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도탑비 제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문도와 종도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봉안법어를 통해 “남허당 대종사님은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종단 현대화와 개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과 선암사 종권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등 우리 종단을 바로 세우는 기둥 역할을 하셨다”고 남허당 대종사의 생전업적을 추모했다.

한편 1917년에 태어난 남허당 대종사는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해월화상(대륜화상 상좌)을 은사로 득도했다. 불교법난 때는 서울 사간동 법륜사 측 대표로 활약했다. 태고종 창종 이후에는 1970년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했으며, 1974년 태고종 총무원장에 선출되었고, 1978년 재임돼 종단을 이끌던 중 1979년 11월 2일 병환으로 법랍 46세 세수 63세로 입적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상진문도회, 수법제자 법맥 전수

10월 27일 양주 청련사서 제5회 건당식 봉행



태고종 상진문도회가 10월 27일 양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제5회 건당식을 봉행했다. 건당식은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건당식은 법주 법담 스님의 종사영반과 소대 타종 등 가사 점안식, 이운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고유문 낭독, 전법의식 등으로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건당식에서 법맥을 이어받은 수법제자는 효휘 경산 스님과 효석 일두 스님, 효학 일구 스님, 효월 해인 스님, 효유 도희 스님, 효길 혜련 스님, 효의 일명 스님, 효견 일엽 스님, 효화 묘향 스님, 효결 수월 스님 등 10명. 상진 스님은 수법제자들이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계문을 내려 낭독 후 전달하고, 조패와 의발을 전했다. 이에 법제자들은 호궤합장하고 그 의미를 새겼다.

이날 건당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직접 증명법사로 태고종조 태고 보우 선사 법맥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날 건당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호명 스님은 “신라 고려 법맥이 태고 보우 선사로 이어졌고, 태고종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태고 보우 선사는 사교입선을 강조했다. 이어 종회의장 법담 스님과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의 축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포항 태풍피해 1억원 기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제 11호 대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10월 23일 봉은사에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사망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사망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금은 봉은사 회주 해봉 자승 스님이 아픔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먼저 제안하면서 전달식이 준비됐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 동국대에 2천만원 기금 전달



서울 은평구 삼천사(회주 성운)가 인재양성을 위해 동국대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0월 26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삼천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삼천사 장학생에는 252명이 신청해 이중 20명을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직접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20~30대의 청년 법우들로 구성된 '전국연합청년합창단'이 BTS그룹의 대표곡인 'Dynamite'를 패기 넘치는 화려한 춤과 함께 부르며 열광의 무대를 선보였다.

국내 최고 공연장에 울려퍼진 대행스님 '선법가'

2022 롯데콘서트홀 '한마음 희망음악회' 현장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런던심포니 등 세계적인 유명 교향악단과 연주자들이 내한 공연하는 등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서울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 대행 스님의 선법가가 울려 퍼졌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10월 23일 오후 4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한마음 음악회'를 공연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한마음선원 승단으로 구성된 60여 스님들이 법고와 파이프오르간 반주에 맞춰 '일체제불의 마음'을 노래하며 문을 열었다. 승단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는 대행 선사의 '일체제불의 마음' 육성 법문이 먼저 흘러나와 관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본격적인 첫 무대는 1984년 창단 이래 1994년에 구성된 거사 합창단과 함께 100여 혼성 '선법합창단'이 등장해 '우리들의 마음' '깊은물 돌고돌아' 등을 선보였다. 음성포교를 수행 재료로 삼은 원력이 모아져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선의 음파는 또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본원 어린이 선법합창단이 무대에 모습을 보이자 객석이 술렁이며 밝은 미소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70여 천진불들은 깜찍한 율동과 함께 '바람의 멜로디' 'A Whole New world(영화 알라딘 OST)' '마음밭 농사'를 연달아 불러 관객들의 열띤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무대는 보살 합창단원 활동을 마친 단원들이 2008년 다시 뭉쳐 결성한 '한뿌리 선법합창단' 순서였다. 보다 깊어진 수행의 묘미를 한층 더 원숙한 목소리로 '정신 발전의 길' '그 마음 그대로' 등 두 곡을 음성공양 했다.

1부의 가장 활기 넘치는 무대는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20~30대의 청년 법우들로 구성된 '전국연합청년합창단'의 무대였다.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의 선법가에 이어 BTS그룹의 대표곡인 'Dynamite'를 패기 넘치는 화려한 춤과 함께 노래해 열광의 무대를 연출했다.

객석과 무대가 하나된 순간이었다. 이날 무대에서는 박준병 오르가니스트의 파이프오르간 선법가 반주도 공연을 즐기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 국내 첫 빈야드(홀 중심에 연주무대가 있는) 스타일을 채택, 초대형 파이프오르간 등으로 주목받은 롯데 콘서트홀을 십분 활용한 레퍼토리 구성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거사 선법합창단 중창팀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기쁨씨의 반주에 맞춰 '나야 나'를 코믹한 율동과 함께 선사해 흥을 돋우웠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황재원이 중량감 있는 음색으로 '무상게송'과 오페라 '잔니 스키키'에 흐르는 '오 미오 바비노 카로(O Mio Babbino Caro)'를 열창하며 무대를 압도했다.

2부는 보살 선법합창단 중창팀이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신아리랑'을 부르며 시작했다. 이어 소프라노 조선형이 '강 건너 봄이 오듯'을, 테너 이정원이 '뱃노래'를, 조선형과 이정원이 함께 '한그릇의 물맛'을 합창했다. 오케스트라가 고즈넉하면서도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반주로 솔리스트들의 맑고 청아한 음색과 울림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김형중이 대행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 32품을 미디어아트로 만들어 첫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음악회의 마지막은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로 올라 '금강게송'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이 끝난 뒤 이번 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서윤재씨는 "1년 동안 연습기간을 거쳤지만 코르나로 인해 실제로 연습한 날이 많지는 않았다"며 "일반인들에게 대관도 쉽지 않은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400여 명의 합창단원들이 대행 큰 스님의 선법가를 다함께 음성공양 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차오른다"고 환희심을 표했다.

합창단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관객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었고, 관객들도 곡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하며 두시간 동안 한 마음이 되었다.

한편 한마음 선법합창단은 2001년 11월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합창제 '임의 소식'을 필두로 2004년 11월 간암환자돕기 합창제 '그 마음 그대로', 2011년 11월 '일체합창제'를 세종문화회관서 공연했으며, 2014년에는 선법가 30주년 기념음악회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무대에 올리며 희망의 법음을 전해왔다.

안양 한마음선원, 10월 23일 오후 4시 · 8시 공연

일반인 대관 쉽지 않은 공성공양

400여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벅찬 감동 선사

'뜻으로 푼 금강경' 미디어아트로 제작해 첫 공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로 올라 '금강게송'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한마음선원합창단 서윤재 지휘자의 열정적인 지휘모습.


본원 어린이 선법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깜찍한 율동과 함께 노래를 선사했다.


선원 승단 60여 스님들이 '일체제불의 마음'을 노래하며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테너 이정원과 소프라노 조선형이 함께 '한그릇의 물맛'을 합창했다.


2008년 다시 뭉쳐 결성한 '한뿌리 선법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하는 모습.


혼성 '선법합창단'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물 돌고돌아' 등을 노래했다.

반세기 맞은 '부산불교거사림회' 기념법회

10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서

공병수 前 회장 추모, 재가 수행 모범
김기추 금강경독송회 · 양흥모 주도해
1972년 부산 거사 20여 명으로 시작돼


부산불교거사림회가 10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 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후 기념촬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거사림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재가불교의 중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배호암, 이하 거사림회)가 10월 25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 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지안 스님(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혜총 스님(前 조계종 포교국장), 배호암 거사림회 회장, 배태순 법계정사 신도회장, 안성이 보현회 회장, 정분남 삼보회 회장, 황형모 동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현익채 前 금정중학교 교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의원,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의 축전도 이어졌다.

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연혁보고 △감사보고 △인사말 △내빈소개 △축사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거사림회는 먼저 부산불교신도회를 이끌고 거사림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공병수 前 회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공병수 前 회장은 지난 7월 23일 84세로 타계했으며 부산 재가불교운동의 주역으로 대학생 청년포교 후원에 앞장서 왔다.

배호암 회장은 공병수 前 회장의 활동을 회고하며 "공병수 회장님은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를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다. 많은 대학생 불자들과 청년들을 위해 전국 사찰순례를 다니고 포교에도 앞장서 끝까지 유마거사와 같은 재가 수행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며 "공회장님께서 오늘같이 좋은 날 살아계셨다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혜총 스님은 "거사림회가 부산불교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다른 신행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대했다. 공 회장님이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 채워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며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흥망성쇠를 겪듯이 거사림회도 이와 같을 것이지만 창립 당시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나가고 있으니 다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온 수행 정진 원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지안 스님은 "불도 부산에서 거사님들이 모여 새로운 불교신행을 위해 깃발을 들고 거사 바람을 일으킨 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부산거사림회가 재가포교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지역불교와 한국불교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50주년 맞으신 것을 축하한다"며 "지금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졌는데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불교의 취지는 부처님 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더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거사림회가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란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부산 불자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불교거사림회는 1972년 7월 31일 효봉 스님이 인정한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5)의 '금강경독송회' 강연과 불교신문(당시 대한불교) 부산 지사장 故 양흥모 씨의 주도로 모인 부산 남성 불자 20여 명으로 시작됐다. 모임은 부산 거사불교의 초석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감로법문에 목마른 재가불자들과 법문의 현장을 잇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세가 강한 부산에는 보살불교만 있는가. 수행과 덕을 쌓는 거사불교를 활성화시키면 부산불교는 더욱 번창하리라' 는 원을 세우고 출범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 문현동 호명사와 소림사 등에서 자체 법회를 봉행했으며, 경봉 스님을 시작으로 석암, 향곡, 고암, 청하 스님 등 대선사의 법문을 비롯해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김지견 박사 등 불교학자들이 높은 수준의 강연으로 법석을 이어왔다.

부산 홍법사 녹색사찰 등록

10월 25일, 경내 초하루 법회에서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식
녹색환경운동 실천 환경보살 서원


홍법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가 10월 25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녹색사찰로 등록하며 지구와 미래 인류를 위해 녹색환경운동을 펼치는 환경보살이 될 것을 서원했다.

홍법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가 10월 25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홍법사-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류 과제인 환경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유정길 운영위원장이 녹색사찰의 활동 및 향후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심산 스님은 "불교환경연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단체"라며 "오늘 이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환경보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도 스님은 "불교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대비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하는 종교"라며 "일체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환경을 위한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협약은 녹색사찰 실천사항들을 인지하고 일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의식이다"고 말했다.

유정길 운영위원장은 "불교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불살생을 주요 가르침으로 삼는다. 환경보호는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경보호는 즉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홍법사 불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금지, 빈 그릇 실천 등 녹색사찰 실천사항에 앞장서며 녹색사찰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법회, 환경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9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개최

11월 6일,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공원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11월 6일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공원에서 '2022 제9회 부산 기장 국제 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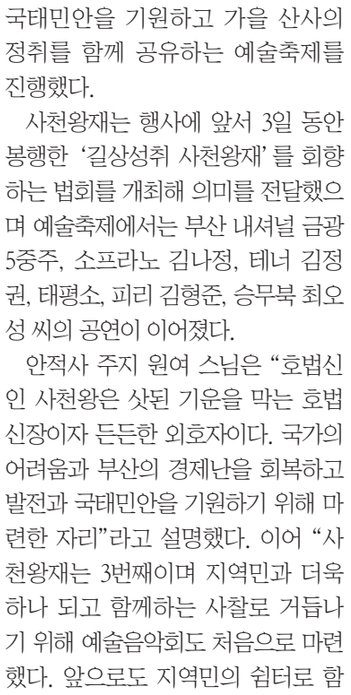
향기로운문화동행은 매년 국내 차인들의 차문화 교류와 국제 한 · 중 · 일 문화교류의 장으로 차(茶) 축제를 열고 있다.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에 개막해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허황후 헌다례'와 전국의 차인들이 꾸미는 '찻자리 대전'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차시연을 함께 보며 차문화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에도 차인들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은 최고의 치유를 선사했다"며 "부산국제차문화축제는 차를 도구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며 국제교류로 국가 간 화합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행사이다. 전국 차인들의 찻자리로 깊어가는 가을을 함께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안적사, 사천왕재 및 예술축제

국태민안 기원, 가을 예술축제
길상성취 사천왕재 회향
소프라노 김나정 등 공연
"지역민 쉼터로 함께해"



부산 기장 천년고찰 안적사(주지 원여)가 10월 20일 경내 사천왕문 앞 마당에서 '불기 2566년 안적사 사천왕재 예술축제'를 봉행했다.

안적사는 이번 사천왕재를 통해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가을 산사의 정취를 함께 공유하는 예술축제를 진행했다.

사천왕재는 행사에 앞서 3일 동안 봉행한 '길상성취 사천왕재'를 회향하는 법회를 개최해 의미를 전달했으며 예술축제에서는 부산 내셔널 금광 5중주, 소프라노 김나정, 테너 김정권, 태평소, 피리 김형준, 승무북 최오성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안적사 주지 원여 스님은 "호법신인 사천왕은 삿된 기운을 막는 호법신장이자 든든한 외호자이다. 국가의 어려움과 부산의 경제난을 회복하고 발전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천왕재는 3번째이며 지역민과 더욱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예술음악회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쉼터로 함께하는 사찰이 되고 가을 문화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적사는 범어사 말사이며 원효대사가 신라 문무왕(서기 661년) 시대에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순례 중에 안적사 터의 상서로움을 느껴 창건할 사찰로 알려져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

11월 12일~13일, 경주 황룡원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정무)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나의 절친은 자기친절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회 첫 번째 강의는 서광 스님의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자기연민(Mindful Self-Compassion For Teens)'으로 문을 연다. 서광 스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이며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두 번째 강의는 이경미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치유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푸드테라피가 진행된다. 다음날 이어질 강의는 '토닥토닥 따스함을 느껴요'와 '친절한 주의 기울이기-연민어린 바디스캔', '쓰담쓰담 쉼 해요', '내 마음의 글을 써요' 등 마음챙김을 통한 자기 연민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051)864-4569~7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벽선암, 개산 81주년 기념

10월 23일, 6년 불사 회향



사단법인 야단법석 벽선암(주지 혜진)이 10월 23일 경내에서 '개산 81주년 기념 탑조성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벽선암 혜진 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종회의장 진산 스님, 전승보존회 도각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법규원장 지호 스님, 안정사 다여 스님, 원각사 지공 스님, 서장사 불성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바라밀선원 주형 스님을 비롯한 박천동 북구청장, 김용석 신도회장, 김용호 원효종 중앙신도회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공로패 전달, 경과보고, 내빈소개, 인사말 및 격려사, 축사, 찬불가, 사홍서원, 공지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또 오층금강보탑 및 공덕비 제막 등 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주지 혜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울산불교의 공찰이 되고자 야단법석을 설립하고 6년간 불사를 진행했다. 오늘은 천일기도 회향과 창건 81주년을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단법석 창건 이념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물들이고, 향기로운 실천으로 사회를 물들이고, 풍요로운 나눔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이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4회 산청불교문화제전 성료

생명가치 강조 · 생명에 평화기원 서원



산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완)가 10월 22일 산청 겁외사 옆 성철공원 특설무대에서 산청불교문화제전을 개최했다.

산청불교사암연합회는 이번 문화제전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은 생명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서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산청불교연합회장 정취암 수완 스님,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 덕산사 동조 스님, 대원사 기현 스님, 심적정사 혜범 스님, 문수암 기영 스님, 왕복사 자우 스님, 옥천사 마가 스님, 무불관 철현 스님을 비롯한 산청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승화 산청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의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안정임 진주불교회관 부이사장, 경상국립대불교학생회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법사이운이 진행됐으며 개회선언, 삼귀의, 청법가, 법어, 축사, 방생의식, 방생이운, 문화공연, 괘불이운, 상단공양, 위령제, 영가시식, 사홍서원, 회향 순으로 이어졌다.

산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수완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방생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불교문화제전으로 고통 받은 인류에게 희망과 자유,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제 62회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10월 21~22일 양일간 개최

1000여 명 운집, 전각 참배
철야정진후 보살계 수계진행
학사대 전나무 고사목 활용
최치원상 제작해 21일 제막

성낙두 경남지사장


합천 해인사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보살계 수계법회 및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해인사 대적광전 탑마당, 해인도, 보경당, 학사대에서 보살계 수계법회 및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스님들과 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째날인 21일에는 해인사 각 전각 불보살 참배가 진행됐다. 대중들은 보경당 마당에 운집해 대적광전, 대비로전, 장경판전(법보전), 독성각, 명부전, 응진전, 만불보전, 보경당 등을 참배했다. 이어 최치원상 제막과 함께 주지 현응 스님 인사와 저녁예불, 해인삼매법문(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해인 총림 율주 경성 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 철야기도가 진행됐다.

둘째날인 22일에는 괘불대 상공의식을 시작으로 보례삼보, 보소청진언, 유치, 헌좌진언, 천수다라니, 석가모니 정근, 축원, 수계의식 등이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보살계 수계법회서 "보살계는 '공덕의 계'라 해서 한 번 받을 때 마다 공덕이 쌓인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삶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수계의식에 참석한 대중들이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무상보리심을 내길 바란다"며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불보살들이 청정한 계를 베풀어 주시도록 깊은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서원했다.

한편,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에서는 최치원상 제막도 함께 이뤄졌다. 최치원상은 천연기념물인 학사대 전나무가 2019년 태풍으로 고사하자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학사대 전나무는 한림학사 최치원의 지팡이가 자랐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나무다. 해인사는 이 전나무 고사목을 소재로 최치원 조형물을 제작했다. 국내서는 문화재 지정 해제 후 해제문화재를 활용한 첫 사례다.

금산사, 뮤지컬 '싯다르타' 전북공연 지원

10월 25일 전관 대관 협약…12월 30일 대관관람



금산사와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은 10월 25일 불교뮤지컬 '싯다르타' 시즌4 관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불교 뮤지컬 '싯다르타'의 전북공연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금산사와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은 10월 25일 불교뮤지컬 '싯다르타' 시즌4 관람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산사는 12월 30일 오후 3시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첫 회 공연의 전관을 대관해 관람하게 된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 김면수 싯다르타 제작팀 MSMC 대표프로듀서, 김미영 제작이사가 참석했다.

뮤지컬 '싯다르타' 시즌4는 인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뮤지컬로 2600년 전 카필라국에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전 고뇌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다.

2019년 초연보다 연출과 짜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현재 전국 주요도시 순회 공연을 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착한벗들, 내 · 외국인 화합한마당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10월 23일 '2022 외국인 주민 및 지역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교육대 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서는 제기차기, 고리 던지기 등의 전통놀이와 참가자 재능을 뽐내는 장기자랑이 펼쳐졌으며 입상한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행사장 내 부스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주경찰서 법률상담, 호원대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대학입시상담,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폭력상담, (사)착한벗들 자원봉사단 소개 등이 이뤄졌다.

화합한마당에는 주춘매 (사)착한벗들 센터장을 비롯해 참좋은우리절 석연 스님, 김동준 전북이주여성삼담소장 등 이주민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 어린이 수계법회 개최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대표 동천)는 10월 22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에서 '제9회 영 ·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부처님'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19명 어린이들이 참여해, 불자로 첫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동천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효공 스님(녹야원 주지),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연성 스님을 비롯해 60여 대중이 참여했다.

동천 스님은 "아이들이 부처님과의 작은 인연을 맺게되어 감사하다. 부모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정기시연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22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8차 시연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정기시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월인 스님, 호산 스님을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주영산재는 시련,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정청, 관음시식, 봉송 등이 진행됐다.

시연에 앞서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승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분야별 개인인증이 되어 후학양성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영산재는 지난 2014년 범음범패에 혜령 스님, 바라무에 호산 스님, 작접무에 월인 스님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파일 관련 전국 학술대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10월 21일 전남대 용봉문화관 4층에서 2022 빛고을관등회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등행사의 전통과 빛고을관등회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김용덕 한양대 명예교수의 '한국 연등봉축행사의 역사와 의의' △노금숙 中호남사대 교수의 '중국 연등행사의 역사와 의의' △김용의 전남대 교수의 '일본 연등행사의 역사와 의의' △르루 티낌엔 전남대 박사과정의 '베트남 연등행사의 역사와 의의' '△최명림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사의 '개화기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초파일 봉축행사의 유형과 변천'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의 '광주초파일 기록을 위한 활동과 빛고을관등회 100년 보고회' 등 발표와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도성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초파일 행사는 단순히 종교기념일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같이 하는 명절과도 같은 축제"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 보림사 대숲길 쉼 음악회 눈길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가 대숲길 '쉼' 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22일 보림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쉼 음악회에는 가수 안치환, 조치현, 박행준, 김승준 마술사와 내장사 서래합창단이 출연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선운사 불교회관 관장 법만 스님,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 미소사 회주 종범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종상 스님, 종광 스님, 미소사 주지 대우 스님 등 스님들과 윤준병 국회의원, 임성식 전북도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과 불자,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10월 27일 오백전에서 '임인년 오백나한대재'를 회향했다. 오백나한이 모셔진 증심사 오백전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1443년 당시 목사인 김방이 꿈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지은 건물이다. 정유재란 및 한국전쟁에 당시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오백전만 불에 타지 않고 전해져, 광주 제일의 기도성지로 꼽힌다.

증심사에서 매년 이런 의미를 담아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국보 승격 모색

10월 20일 개암사 누각서 세미나 개최

부안 개암사(開巖寺) 소장 보물인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및 초본'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10월 20일 부안 개암사 누각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부안 능가산 개암사의 역사', 신광희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연구교수가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및 초본 연구',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및 초본의 가치'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김정희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신광희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및 초본 연구' 발표에서 "개암사 영산괘불도는 불화승 의겸 스님의 작품으로 '오종범음집'과 '조상경'의 범자 비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및 초본'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라며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및 초본'이 국보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대부분 불교문화재다. 문화재 지정에서 종교적 가치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원효종 금강계단 개설

10월 14일 울산 요산정사서 수계법회 봉행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청암)은 10월 14일 총본산 요산정사에 금강계단을 개설했다. 개설법회에는 교수아사리 청암 스님, 갈마아사리 자윤 스님, 5증계사 법진 스님, 태일 스님, 현응 스님, 해민 스님, 해각 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구족계는 비구 스님으로는 법송, 적연, 도천, 수남, 효진, 왕산 스님이, 비구니 스님으로는 적명, 창연 스님 등이 받았다.

수계식에서 참석 스님들은 '초발심변정각'에 대한 화두를 품고 불교 생활화와 포교에 앞장 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교수아사리로 나선 청암 스님은 "물고기가 물에서 노닐 듯 계 안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계는 배가 해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먼 바닷길을 항해하듯 피안에 이르기까지 나침반과도 같다"며 "기쁨을 갖고 지계할 때 다시 환지본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남사 제11회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



울산 해남사(주지 혜원)는 10월 20일 경내 음식 전시실에서 제11회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울산불교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진각종 정지심인당 선덕정사, 벽선암 혜진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 바라밀선원 주형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등 지역 스님 및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이정훈 불교신도회부회장, 김인선 울산불교여성회장, 박순란 울산불교교육대학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문화한마당은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 스님 인사(혜원스님), 내빈소개, 울산종단연합회장스님 격려사(백양사 산옹스님), 축사(경제부시장, 중구청장), 쌀 나눔전달식, 공지사항, 사홍서원, 테이프 커팅식, 음식라운딩, 회향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해남사 해원 스님는 "불도에 정진하고 몸을 청정하기 위한 어(魚)와 육(肉)을 피하고 해초 곡류중심 재료의 정진음식(精進飮食)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수행정신과 불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며 "자연을 풍성하게 담아낸 한상 차림으로 건강하고 클래식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가을날 넉넉하고 다채로운 고유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며 "향토음식을 통하여 승원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귀한시간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동 봉정사, 엘리자베스 2세 49재 봉행



안동 봉정사는 10월 26일 엘리자베스 2세 49재를 봉행했다. 엘리자베스 2세 49재는 엘리자베스 2세가 1999년 4월 21일 봉정사를 방문한 인연 때문에 열렸다.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 봉정사 주지 두현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봉정사는 전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은 영국 여왕이 찾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캐나다에 중국 양식 관음전 들어섰다

캐나다불교협회, 불교정원 조성

2006년, 스님 3명 설립 발기
2019년 대웅전 이어 성지화
4대 성지 건립 원력 첫 결실로
고대 중국 '두공' 기술로 건축
중국 문화 홍보…유대 강화도

김민재 객원기자



캐나다 우타이산 불교 정원의 대웅전과 관음전(좌측 아래). 사진출처=데일리 차이나

캐나다에 중국 당조시대(唐朝時代)의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중국 사찰이 완공돼 화제다.

지난 10월 20일 중국의 영자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는 캐나다에 당조시대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우타이산 불교 정원의 관음전 완공 소식을 전했다.

캐나다 피터버러 카운티의 카반 모나한에 당조시대 전통 건축 양식을 따른 우타이산 불교 정원의 관음전이 완공됐다.

캐나다 불교협회 잠산사(湛山寺)의 원력과 캐나다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1년 첫 삽을 뜬 '캐나다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명상센터와 재활센터를 갖춘 세계적인 불교 복합단지이다. 먼저 완공된 대웅전은 중국의 3대 불교 영산이자 세계 5대 불교성지인 산시성의 우타이산 대웅전을 그대로 본떠 건립했으며 2019년에 봉행한 대웅전 상량식에 2만 7천여 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우타이산(五臺山)은 〈화엄경〉에서 "중국 화북 지방에 있는 청량산(오대산)에서 문수보살과 1만여 명의 보살이 함께 살면서 설법을 한다"고 나온다.

잠산사 다이 시 스님은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중국의 고대 건축기술과 전통 디자인의 절정을 담았다. 고대 중국 기술인 '두공'으로 지어진 당조시대 목조 건축물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두공은 공포라고도 불리며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짜 맞추는 기둥 공법이다.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의 모든 분파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님은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장소다. 불교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불교 정원에 방문한 모든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캐나다 우타이산 불교 정원은 또한 지역 관광의 부흥과 경제 발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음전 상량식에 참석한 빅터 오 상원의원은 "평화와 화합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며 우리 사회에 가치를 확산시키는 주요 주제"라면서 "잠산사의 헌신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왔으며 캐나다의 종교 신앙의 자유정신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관음전 건립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물자와 건축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이 증가했으며 중국 건축 기술자가 입국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담당자들은 관음전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북미에서 가장 짧은 공기, 5개월 반을 기록했다.

다이 시 스님은 "경영진과 건설팀의 용감한 노력과 불자들의 원력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가로 건립할 예정인 화엄전(비로전)과 일주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협회 잠산사의 설립 발기에 참여한 3인의 스님은 캐나다에 4대 성지 건립 원력을 세웠다. 2004년 잠산사 주지로 임명된 다이 시 스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역경과 도전 끝에 2005년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 다음 해인 2006년에 우타이산 불교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美, 혼간지 사원 창건 125주년 기념 법회

어린이 불자, 천신 행렬 재현 및 타임캡슐 매설



천신 행렬에 참석한 어린이 불자들과 혼간지 사원 스님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미국에 있는 일본계 혼간지 사원이 창건 125주년을 맞아 특별 법회를 봉행해 화제다.

지난 10월 18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미주 일본계 혼간지 사원의 창건 125주년 특별 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미국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일본계 사찰 혼간지 사원 창건 125주년 특별 법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형 법회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일본 전통 명절인 오봉(お盆)축제와 함께 봉행했다. 일본 본토에서 오봉축제는 7~8월 중에 열리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 우란분절에서 기원한 축제이다.

코나 혼간지 포교단의 에릭 마츠모토 대표는 "우리는 일본 이민자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125년의 역사를 기념했다"면서 "코나 혼간지 사원은 조화와 평화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관불과 염불을 통한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불자들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천신 행렬을 재현했다. 행렬이 끝나자 특별 법회의 예불을 봉행했다. 혼간지 사원의 린다 나가이 이사는 "코나 혼간지 사원은 125년의 역사를 지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125년의 미래를 그린다. 블레인 히가 스님을 필두로 하는 헌신적인 승가가 다음 세대를 이끌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축사를 전했다.

점심 공양 이후 수계를 원하는 불자에 한해 수계식이 있었다. 특별 법회의 마지막은 50년 후에 개봉할 타임캡슐에 불자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매설했다. 해가 저물자 형형색색의 연등을 점등하며 봉오도리(백중맞이 춤)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 전통 복장을 입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태고(일본의 전통 북)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다.

특별 법회를 마치고 코나 혼간지 사원의 페이스북에는 "125주년을 축하하는 멋진 주말을 보냈다! 모두를 위한 즐겁고 유의미한 행사였다. 우리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법회 소감을 공유했다.

미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일본계 사찰 혼간지 사원은 1897년 코나 혼간지 포교단이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 자국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재 혼간지 사원은 일본인과 일본계 미국인 후손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혼간지 사원과 제휴를 맺은 여러 단체들이 사원을 이용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포도·와인 불단 올리는 日사찰 '화제'

대선사, 포도 농사…와인 제조
주민에 약용 와인 비법 전수도



불단에 포도와 와인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대선사. 사진 출처=대선사 홈페이지

포도를 직접 재배해 와인을 만드는 일본의 한 사찰이 화제다.

AFP 등 외신은 지난 10월 19일 이른바 '포도의 절'이라 불리는 대선사(大禅寺)를 소개했다.

대선사는 일본의 최고 와인 생산지인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야마나시에 위치한다. 주지 테슈 이노 외(Tesshu Inoue · 75) 스님은 포도원 협동조합의 명예회장이다.

테슈 이노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절에서는 신도들에게 일본 전통 주인 사케를 주는데 우리는 와인을 준다"며 "일본 불교에서 매우 독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사가 '포도의 절'이 된 것은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년)였던 서기 7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유명한 승려이자 여행가였던 교키(Gyoki) 스님은 오늘날 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오른손에 포도를 든 약사여래를 만난 꿈을 꿨다. 이에 교키는 대선사를 불사하고 약사여래상을 목각으로 만들어 안치했다. 이후 포도원을 열고 인근 주민들에게 약용 와인을 제조하는 법을 전수했다.

일각에서는 교키 스님이 만든 약용 와인이 일본 와인의 대표 품종인 '고슈'(甲州)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

대선사는 항상 불단에 포도와 와인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직접 재배한 포도와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을 사부대중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AFP는 "주지 스님이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일은 역사를 잇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좋은 업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슈는 1300년 전 일본에 들어와 토착화된 일본 고유의 포도 품종이다. 2010년 6월 일본의 와인양조용 포도로서 국제와인기구(OIV)에 정식 등록됐다. 현재 일본 내 와인양조용 포도 중 고슈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 청년들, 카티나 기념 마음챙김

10월 12~16일, 자바 동부서 축제 개최



인도네시아청년불교협회가 카티나를 기념하며 마음챙김 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남방불교의 최대 행사인 '카티나'(Kathina)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청년불교협회(YBA)가 마음챙김 축제를 개최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YBA는 지난 10월 12~16일 자바 동부에서 '마음챙김축제 2022'를 열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마음챙김의 개념을 비롯해 카티나의 의미와 가르침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다.

빌리 루키토 조스완튼(Billy Lukito Joeswanton) YBA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생활화하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마음챙김명상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모두 유익하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YBA 소속 청년들은 이번 행사에서 현대기술을 결합한 불교 전통 의식과 음악 공연, 서예, 사자춤, 어린이부 공연 등을 선보였다.

수프리야디(Supriyadi)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불교공동체 지도국장도 "자바 동부의 젊은 불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남방불교 최대 축제를 맞아 청년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정말 놀랍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 전통을 계승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수프리야디 지도국장은 "이런 활동 덕분에 인도네시아 불자들은 전통을 더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티나는 남방불교 전통 의식으로 음력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거가 끝나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6~1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3	인생에한번쯤교양으로읽는채근담	홍자성	레몬북스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숫타니파타(빠알리대장경/쿳다까니까야)양장본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6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	운주사
7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8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9	에세이효봉:오늘일을묻는가달이일천강에비치리	이일야/강건기 감수	담앤북스
10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걱정할 필요없다,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진우 스님은…1972년 강릉 보현사로 출가했으며, 1978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개원) 등에서 수선안거했으며,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를 지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재심위원과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10년 전 용흥사 몽성선원을 개원하며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고 정진을 다짐하는 결심으로, 예불을 끝낸 이른 아침 가장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다짐과 실천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놓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밴드 '오늘의 명상'(https://band.us/@jinwoo)을 통해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감로법(甘露法)을 전하고 있다.



제발, 걱정하지 마라
글 진우 스님
동국 펴냄
1만 9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의 핵심이자 행복 비결인 인과의 도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인과는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즐거움이 오고야 만다'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예측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부처님이 말씀한 연기법에 맡기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인과를 굳게 믿고, 스스로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며 대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제 1종단 조계종 행정수반인 동시에, 대표 리더인 진우 스님이 제 3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뒤 향후 4년간 한국 불교를 이끌 청사진을 그리며 불자들에게 전하고픈 생각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종단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친화력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킨 덕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중 스님들은 '진우 스님'을 찾았다. 이렇게 진우 스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부처님 마음을 부지런히 익히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져주는 일에 누구보다 탁월하다.

이번에 내놓은 책 〈제발, 걱정하지 마라〉에서는 그런 진우스님의 진면목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진우스님은 수 년 전부터 네이버 밴드 '오늘의 명상 (https://band.us/@jinwoo)'에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 왔다. 이 책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개된 여러 금언(金言) 가운데서 유난히 아름답고 예리한 언어들을 엄선해 묶은 것이다. 오늘날의 진우 스님을 만든 건 결정적으로 스님의 뛰어난 지혜와 안목이 있어서 가능했다. 책 속 곳곳에서도 불교의 핵심이자 행복 비결인 인과(因果)의 도리가 행간마다 선연히 빛나고 있어 진우 스님의 깨달음의 진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진우 스님은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즐거움이 오고야 만다'는 희망과 용기의 법문으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준다. 이 감로법문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삶'이라는 인내와 정진의 교훈이기도 하다. 걱정하지도 예측하지도 말고, 그저 모든 것을 부처님이 말씀한 연기법(緣起法)에 맡기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다독인다. 인과를 굳게 믿고, 스스로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며 대자유를 누리라고 오히려 힘을 불어넣는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슬픈 이유는 간단 명쾌하다. 언젠가 기뻤었기 때문이다. 좋음의 과보가 싫음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고업(苦業)과 낙업(樂業)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한다. 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金言 법문집
기쁨만 취하려는 분별심은 황폐하게 돼
'기꺼이 견딜줄 아는 삶'의 가치를 역설

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진(精進)이다. 역경을 당하면 꿋꿋이 인내하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좋은 날을 차분한 자세로 기다리면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좀 더 빨리 찾아온다. 내면을 밝히는 참선과 함께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생활하면서 선연(善緣,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다리기보다는 분노한다. 기쁨과 슬픔이 오가는 것이 삶의 순리임에도 기쁨만 취하려 하는 분별심이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한다. 진우 스님은 우리가 갈수록 불행해지는 까닭은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습성 탓이라고 지적하며 '기꺼이 견딜 줄 아는 삶'의 가치에 대해 역설한다.

책은 총 4장에 걸쳐 110개의 다채로운 잠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과의 도리를 불교적이고 학문적으로 밝히는 법문이 전면에 배치 된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잘 읽히는 우화(寓話)를 소개하며 거기에 짧은 논평을 붙여 인과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들도 잔잔한 여운을 준다. 때로는 진우 스님 앞에서 직접 상담 받는 듯한 기분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에는 결혼, 자식교육, 계속되는 불운 등등 일상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 당장 도움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도 들어있다. 아주 짤막한 게송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선사의 사자후를 닮았다. 갈증이 심화 됐을 때 감로수 한 사발 들이키는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복잡했던 삶의 번뇌나 고민들이 일순간 말끔하게 정화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하자면 이 책의 핵심은 바로 굳이 애타게 바라지 않더라도 기쁨은 반드시 오고, 몸서리치며 거부하지 않아도 슬픔은 반드시 떠나가고 마는 것이 인생의 영원한 진리이므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과 상황은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을 유유히 타고 넘어가는 운명애(運命愛)를 갖자는 당부이다. 오랜 수행 전법으로 이뤄진 깨달음이, 명민하고 푸근한 말투의 글로 빚어져 친근하게 다가온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올해도 푸르고 높은 하늘 아래서 값진 오곡이 무르익었습니다. 단풍에 물든 산이 귀환하고 계곡물 소리는 언제나 상쾌합니다. 무더위를 내려놓은 햇살이 반갑습니다. 자연의 순환은 이렇듯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때마다 선물을 안깁니다."는 책의 서문과 같이 실상(實相)은 언제나 평온하고 반듯하다. 헐떡거리고 비뚤어지는 건 항상 우리의 마음이다. 빗나간 시선들을 교정하는 진우 스님의 경책과 조언이 이 책을 다 덮고 난 뒤에도 귓가에 생생히 맴돈다.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돌아온 가을을 보라.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신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법과 질서는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절대다수의 평안을 해치는 위법이 된다. 하지만 법과 질서가 너무 빡빡하게 적용돼 사람들의 평안을 깬다고 한다면 수단이 목적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120p)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인과를 모르니 그러고 산다. '기분 좋음'의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그와 똑같은 크기의 '기분 나쁨'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지고 재지 말자. 후회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은 부처님, 곧 인연 연기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 알아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129p)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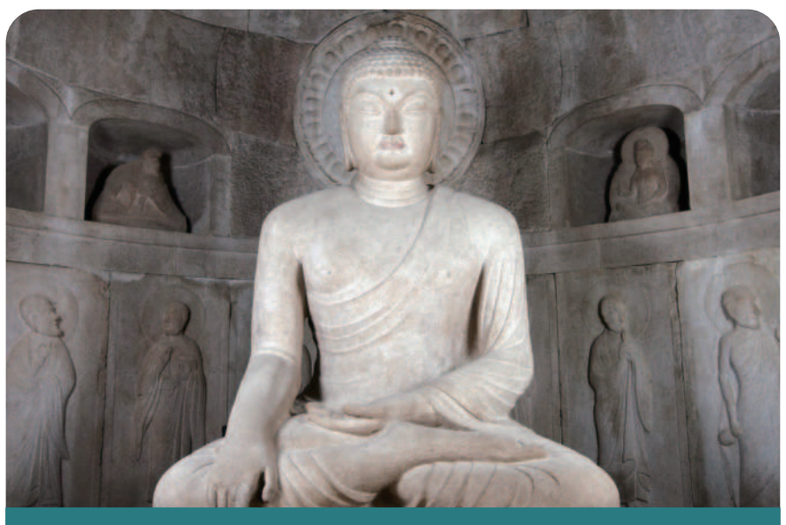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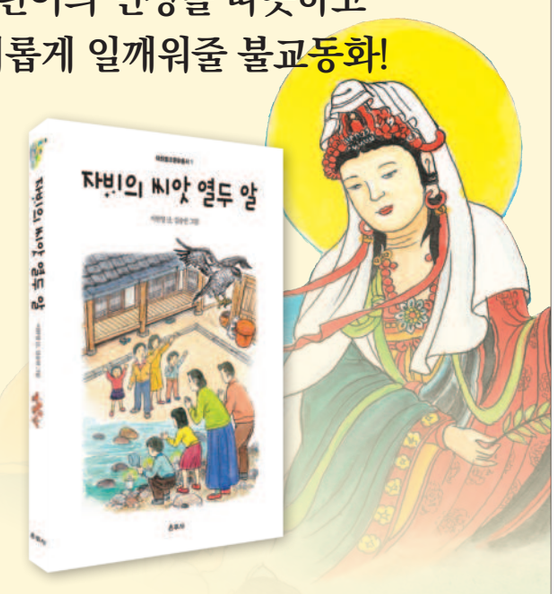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회암사지 세계유산 본 등재 발원하며…

양주시립회암사지발물관 개관10주년 특별전
'회암사지 그리고 양주' 2023년 3월 26일까지

'회암사약사삼존도', '청동금탁' 등 전시
회암사지 역사근거 · 유물 발굴 과정 등
유적가치 증명 위해 노력한 과정 조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양주 회암사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3월 2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회암사지 그리고 양주'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보물 '회암사약사삼존도' 등 회암사지를 조명하는 유물들을 전시한다.

양주의 대표 유적지인 회암사지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중기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사찰 중 하나인 회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오랜 기간의 발굴과 정비를 통해 광활한 사역에서 수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유적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10년간 다양한 연구 · 전시 · 교육이 진행됐으며, 마침내 올해 7월 2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그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유적의 우수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알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의 노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는 제도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세계유산 등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7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된 중심지역과 부도, 석등, 비석 등 고승들의 기념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잠정목록 신청서를 통해 양주 회암사지가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이자 불교 선종의 수행전통과 사원의 공간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고려 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던 회암사는 한때 3천여 명의 대중이 살았으며, 조선 초기만 해도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사찰로 위상과 규모면에서 모두 최고의 가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난 후부터 유신(儒臣)들에 의해 억불정책이 일면서 위기를 맞았다. 위상은 쇠퇴하고, 가람은 소실됐다. 회암사는 조계종 수행의 근간을 이뤘던 천년고찰이다. 지공 선사가 천혜의 길지임을 일러주었고, 제자인 나옹 선사가 도량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와 함께 대대적인 중창을 이뤘다. 이처럼 회암사는 역사적인 곳으로 삼대화상과 선사들의 수행의 맥이 숨 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전을 개최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박물관은 지난 10년간 양주 회암사지 유적뿐만 아니라 양주의 다양한 유물을 수집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민들에게 알찬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물관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이번 전시는 특히 회암사의 흥망성쇠를 증명하는 보물 '회암사약사삼존도'와 '청동금탁'의 원본이 긴 세월을 지나 다시 고향인 양주에서 전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부 '대가람, 빛을 되찾다'는 회암사지의 역사적 근거와 유물 발굴과정 등을 조명하고 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964년 6월 10일, 사적 128호로 지정됐다. 1997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 13차 발굴조사까지 20년이 넘는 조사연구와 정비작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회암사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발굴조사, 박물관 건립, 유적 정비, 공원화 사업, 단지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수습된 유물들은 발굴지 옆 '양주 회암사지 발굴자료관'에 임시로 보관했고, 회암사지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출토 유물들은 '출토유물 관리 지정'에 따라 박물관에서 보관 · 관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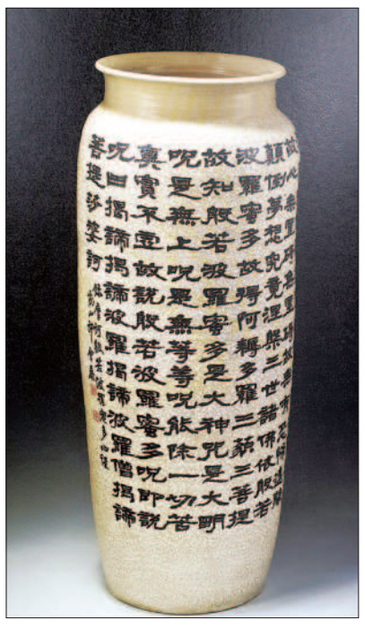
2부 '대가람, 양주를 품다'는 박물관이 회암사지 유적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 대해 조명한다. 그 동안 박물관에서는 유적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 수행과 철저한 유물관리, 전시, 교육 등 박물관의 기본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더불어 양주시의 공립박물관으로서 양주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와 유적 및 보호구역 전체를 박물관의 활동 대상으로 확대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약 7년간의 노력을 통해 잠정목록 등재라는 성과를 거둔 유네스코 추진사업,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누구나 자유롭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잔디공원 관리 등 회암사지를 학술적 · 대중적 명소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물관은 앞으로의 10년 역시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 등재라는 큰 목표를 향해 대중과 함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경기 북부의 대표 박물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암사약사삼존도.

김영삼 허회태 '붓질의 콜라보' 展

G&J 갤러리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허회태 作, 도자 분청(般若心經)


김영삼 作, 연(生生之理)

전통문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김영삼 작가와 서예를 현대미술로 승화시킨 이모그래피 창시자 허회태 작가가 2인전을 연다. 두 작가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G&J 갤러리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붓질의 콜라보' 展을 개최한다.

김영삼 작가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염화미소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린 '연(生生之理)', 연잎을 마음에 두고 공존의 형상을 그린 '연2(生生之理)' 등을 선보인다. 작품 '연(生生之理)'은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들의 사바세계에서도 깨달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을 보며 등불이 되는 삶을 염원하며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 '연2(生生之理)'는 씨앗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잔잔한 물줄기가 낙하하며 폭포를 이루는 것처럼 경계를 넘어가는 것들의 모습이자 여세에 대한 작품이다. 단단한 바위와 강한 뼈대도 시간 앞에서 그 모양과 구조를 잃는다. 형태를 가진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는 순환을 생각하며 그 속에 담긴 무수한 경험과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린 작품이다.

허회태 작가는 '好日', 반야심경을 새긴 도자 분청 등을 선보인다. 작품 '호일'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에서 온 것으로, '好'와 '日' 두 글자로 회화성을 이끌어내 작품화 했다. 특히 기운이 생동하는 획(선)은 동양예술의 서예나 동양화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거침없이 단번에 완성했다. 조형성으로 볼 때 내리쬐는 햇살아래 기쁨에 찬 율동적인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의 내용처럼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인 듯하다. 이렇게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형상성으로 표현해내는 작업, 그것에 압도적 필력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허회태 작가의 작품세계이다.

반야심경을 새긴 도자 분청은 부처님 앞에 선 작가가 일체의 잡념도 허용되지 않은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불심과 정성을 도자기에 구현한 작품이다. 초벌구이 후 철사(검정색)로 쓴 반야심경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것으로, 백척간두에 선 긴장감으로 화선지와 달리 한 글자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작품으로 완성하는 데 10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김영삼 작가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미술상과 서예 문화상, 한국예총 문화예술상 미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외에서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4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슬기로운 의사 생활', '황금물고기' 등 20여 편의 드라마에 문인화를 등장시켜 현대화된 문인화의 전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를 포함하여 국내 여러 대학의 강의를 맡았으며, 대전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국 미술협회 문인화분과 운영 부이사장과 목우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회태 작가는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으며, 5세 때부터 한문과 서예를 시작해 중 · 고교 시절부터 전국서예대회에서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금호고 2학년 때 학교 후원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여 회의 개인전과 세계 서예 전북비엔날레 본전시 등 5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는 무산서예원과 예술의 전당 등에서 후학양성과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며, 중국 연변대학교 미술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재완 기자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 임인년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8주간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께서는 어렵게 준비한 특강에 많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 11월 26일 (음 11월 3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3시 ~ 5시까지
■기 간 : 2개월 (매주 토요일)
■강 사 : 이기봉 스님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승교육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
■연락처 : 02)392-3234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 박장호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조고담

일제 철거 부석사 조사당 벽화, VR로 재탄생

국립문화재연구원 10월 27일 온라인 공개 · 학술토론회

고려代 조성된 最古 사찰 벽화
일제 철거해 액자로 담아 보관
철거 전 모습, 기록 통해 복원
벽화 3차원 시각화 최초 사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VR콘텐츠로 재현된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고려시대 조성된 현존 최고(最古) 사찰벽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해체돼 액자에 넣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는 국보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다. 고려시대 조성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한반도에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 스님(625~702)의 조각상을 봉안한 감실 맞은 편 벽면에 6폭에 걸쳐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 등을 그린 불교회화다.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해체됐고 6폭의 벽화는 각각 벽체 뒷면 일부를 제거하고 석고로 보강해 액자에 넣었다. 이후 부석사 무량수전에 걸려 있다가 성보박물관에 수장됐다.

하지만, 석고로 인한 백색오염과 벽화의 노후로 박리와 균열이 생기는 등 구조적 손상도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지난해부터 보존처리에 들어갔다. 또한 벽화를 해체 이전 모습으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공간에서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사찰 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일제강점기에 벽에서 떼어지기 전 모습을 VR 콘텐츠로 복원해 10월 27일 온라인에서 공개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도상을 분석한 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모사도(模寫圖) 원본과 초분광 카메라 촬영 결과를 활용해 철거되기 전의 벽화 모습을 도면으로 복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벽에서 분리되기 전의 벽화를 3차원 공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해냈다.

연구원은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이번 디지털 복원 VR 콘텐츠는 오랜 세월 손상된 벽화의 도상을 상세히 고증하고, 벽에서 그림이 분리되기 전의 모습을 3차원(3D)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근대기 이후 벽화의 보존 이력을 기록한 시각자료들과 함께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학술토론회를 열고, 조사당 벽화의 복원 성과를 공유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도상 연구와 디지털 복원' 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조사당 벽화의 근대기 기록과 디지털 복원 성과(박윤희,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사당 벽화의 과학적 보존(정혜영,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부석사 조사당 디지털 복원 VR콘텐츠 공개와 학술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향유하고, 벽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전국 사찰 일주문·문루들 보물된다


보물로 지정된 사찰 일주문들. 사진 왼쪽부터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문화재청 10월 27일 지정예고
선암사 · 봉암사 등 일주문 4건
문루인 고성 옥천사 자방루도
실상사 편운화상탑 보물 예고

사찰 일주문은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정문으로 기둥이 일렬로 배치된 독특한 형식의 문이다. 사찰 4곳의 일주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문화재들은 사찰 일주문 4건, 사찰 문루와 불전, 누정건축, 승탑 등 각 1건이다. 사찰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은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전국 50여 사찰의 일주문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곳의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사찰 일주문은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다.

'순천 선암사 일주문' 은 조계문(曹溪門)으로도 불리며 1540년 중창됐다. 선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다포식 공포로 돼있으며, 기둥 구조는 기둥과 창방(기둥 상부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부재)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문경 봉암사 봉황문' 은 정확한 창건 기록은 없으나, 다른 기록을 통해 172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 앞쪽에는 '희양산봉암사(曦陽山鳳巖寺)' 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 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 은 1633년(선조 11년)에 처음 건립됐고, 1965년에 현 위치로 이건했다. 동화사 봉황문의 구조는 주기둥 상부에 비스듬히 부재를 덧댄 형태와 주기둥 옆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운 형태가 혼합된 형식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구례 천은사 일주문' 은 1723년에 창건됐으며 앞쪽에는 원교 이광사(1705~1775)가 쓴 '지리산 천은사(智異山泉隱寺)' 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원교 이광사가 흐르는 물과 같은 글씨체(水體)로 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찰 문루인 '고성 옥천사 자방루' 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상량문 등 기록에 따르면 1664년에 법당 맞은편에 위치한 정문(正門)으로 처음 건립됐고, 1764년에 누각형태로 중창돼 '정루(正樓)' 또는 '채방루(採芳樓)' 라 지칭했다.

이와 함께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과 신라 말기 승탑인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은 왕실의 주도로 1674년 창건된 사찰로, 대광명전의 목재 연륜연대 조사에서도 주요부재가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돼 봉국사 창건과 함께 세워진 불전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내부 닫집의 화려한 구성은 해당 전각이 왕실의 지원 아래 조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불상을 중심으로 주변의 장엄을 돋보이게 치장한 방식은 조선후기 불전 사례의 하나"로 평가했다.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은 고승인 편운화상(?~910)에 대한 공양과 추모의 의미를 담은 승탑이다. 기단부와 탑신부를 비롯한 전체적인 비례와 비율 등이 조화로워 당대 최고의 장인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한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포항 법광사지서 통일신라 금당지 발굴

경북문화재단 발굴 결과 발표
왕경사찰 나오는 녹유전 확인
불두 없는 180cm 불상 발굴
"불국사 비견되는 사찰" 주장


발굴조사 중 확인된 포항 법광사지 금당지 전경. 왕경 사찰에서 사용되는 녹유전 바닥도 함께 확인됐다.

포항 법광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당지와 180cm에 달하는 불두 없는 거대 석조불상이 발견됐다.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원장 전규영, 이하 연구원)과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사적 '포항 법광사지' 추가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창건기 사찰에 해당되는 금당(절의 본당)지 기단 구조와 표면에 유리질의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녹유전) 바닥, 180cm 높이의 불두없는 불상 등이 확인됐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 금당지와 금당지 내 녹유전 바닥의 발견이다. 녹유전은 경전에서 극락정토의 땅을 유리 같은 대지로 묘사한 것을 재현한 것으로, 이 같은 녹유전은 경주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불국사 등 통일신라시대 축조한 왕경 궁성과 중심사찰에서만 확인됐다.

또한, 불두는 없지만 그 높이가 180cm가 되는 거대 석불이 발견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연구원은 "불상대좌에 봉안됐을 불상이 불두가 없는 상태로 두 조각으로 나눠 출토됐다. 불두가 없지만 높이가 180cm된다. 대좌를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460㎝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505cm인 석굴암 불상보다는 작지만 신라 왕경인 경주 지역의 다른 불상과 비교해도 매우 큰 불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두에 부착됐던 흙으로 구워 만든 나발 160여점, 금동불입상, 향로, 정병 등 다수 유물이 금당지에서 발견됐다.

법광사지는 원효 대사가 신라 진평왕(579~632)의 명으로 창건했으며, 삼층석탑에서 나온 석탑기에는 828년 탑이 건립됐고, 846년에 이건됐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법광사지 발굴조사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50여기의 건물지와 위치에 따라 조성된 배수로, 산지가람의 대지 조성을 위한 석축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사격을 알려주는 금동투조판, 금동장식, 귀면와, 막새 등 300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수습됐다.

문화재청은 "포항 법광사지는 불국사에 비교될 만큼 넓은 사역을 이루며, 왕실사찰에 걸맞는 격이 높은 유물이 출토돼 신라 사찰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포항시,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과 통일신라 창건기의 원형과 향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향후 사적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상담학회 '심리상담사법' 논의

11월 12일 학술대회 개최

심리사법 제정을 앞두고 불교계 대응을 함께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경주 황룡원 화랑홀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상담사 법제정' 을 주제로 제1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심리상담사 법안 비교(선업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상담심리 관련 법제정에 대한 학교 및 불교상담의 역할(효록 스님, 동국대) △종교의 입장에서 본 심리상담사 법제화(박현민 신부, 수원 카톨릭대) 등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이사 현암 스님, 김지명(동국대), 이채화(서울불교대학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하며, 비대면 참가자는 웹엑스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웹엑스 미팅룸 번호는 2558 656 699이며 패스워드 123456이다.

(010)2933-0061 하성미 기자

해인사 신라시대 쌍둥이 목불 '국보'됐다

문화재청 10월 26일 지정 공고
법보 ·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
"완성도 · 조형미 완벽" 평가돼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물 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불인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왼쪽)'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오른쪽)' . 국보로 지정됐다.

현존하는 국내 목불(木佛) 중 가장 오래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불상 2점이 국보로 승격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또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법화현론 권3~4〉 등 조선시대 불화, 고려 · 조선시대 경전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은 본래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졌다가 현재 '대비로전' 에 함께 봉안돼 있다.

두 불상의 제작 시기는 개금과 지정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5년 개금과정에서 '중화삼년(中和三年, 883년)' 묵서명이 발견됐으며, 이후 박상진 경북대 임산공학과 교수는 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AMS)를 통한 연구로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의 조성연대가 AD740~950년 전후임을 밝히기도 했다.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수인(手印)인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한 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복장유물 역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1490년 불상을 중수하면서 납입한 복장유물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완벽하게 보존된 후령통(喉鈴筒, 복장을 넣은 통)을 통해 16세기 복장의식집인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전에 복장의식이 정립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으로,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며 "복장유물 역시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납입된 물품의 목록으로 구성돼, 복장유물 절차 기원 등이 확인돼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불화인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와 고려~조선시대 불교 전적 5점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는 1755년(영조 31)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 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8

▶ 89회 예고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명을 받고 마투라 인근에 있는 아호강가산(山)으로 간다. 그곳에 은둔하고 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의 명을 거절하고 아쇼까라마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알린다.



아쇼까왕, 담마칙령 계속 공포

아쇼까왕은 보드가야에 있는 호위부대 조장에게 지시했다. 아쇼까왕의 지시란 추나르 사암 채석장으로 가서 가능한 한 석주를 많이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암 채석과 석주 공정(工程)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석주 한 개의 크기는 장대했다. 거대한 사암 덩어리에서 고작 석주 한두 개가 나오면 다행일 정도였다. 석주 한 개의 길이가 건장한 군사 걸음으로 22보쯤 되고, 밑둥지름이 성인 팔로 한 아름, 꼭대기 지름이 1보 반쯤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암 덩어리를 채석했다고 하더라도 또 석공의 작업장까지 운반이 녹록치 않았다. 수백 명의 군사나 젊은 장정들이 사암 덩어리를 통나무들 위에 올려놓은 뒤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끌고 와야 했다. 사암 덩어리가 작업장에 도착하면 수십 명의 석공들이 정으로 쪼아 석주 형태를 잡은 뒤 도구를 이용해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갈았다. 때문에 1년에 만들어지는 석주는 서너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의 의지는 강했다. 붓다에 대한 '믿음의 상속자'에서 '담마의 실천자'가 된 아쇼까왕의 석주 조성의지는 궁중창고의 금은보화가 텅 빌 정도가 됐지만 신하들 중에서 누구도 꺾지 못했다. 마힌다의 보고는 아쇼까왕의 마음을 더 격동시켰다.

"대왕님이시여, 작년에 만들어진 석주에 새긴 대왕님의 담마칙령은 저에게도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쇼까왕은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기억했다. 석주에 새긴 각문은 아쇼까왕의 열정과 의지에 다름 아니었다. 아쇼까왕이 두런두런 소리내어 외웠다. 한때 아들이었던 마힌다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됐을 때, 나는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처음으로 담마칙령을 석주에 새기도록 하였다.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백성들이 여러 면에서 담마로 인해 나아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복지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중략) 나는 모든 종교 교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경과 존경을 표해왔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왕님이시여, 대왕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여러 교단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하신 대왕님께서 작년에는 아지비까 교단에 성스러운 동굴법당 두 개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두 개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기증할 수도 있소."

아쇼까왕의 의지는 확고했다. 석주의 조성이 늦어지면 이미 해왔던 방식을 계속하리라고 결심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반반한 바위를 찾아서 담마칙령을 새겨왔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자신의 의지를 담은 담마칙령을 이미 정해둔 것도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담마를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마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마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담마를 공포하여 알려야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담마를 듣고, 담마를 따르게 되고, 그들 자신을 향상시키고, 담마를 받아들여 아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나는 담마칙령을 공포해 왔고 많은 붓다의 가르침을 시달할 것이다.〉

삐야다시는 왕위에 오른 아쇼까왕의 공적인 명칭이었다.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비로운 용모를 가진 이'란 뜻을 가진 말이었다. 그때 장로니 상가밋따가 들어왔다. 아쇼까왕이 딸인 상가밋따를 부드러운 말투로 맞았다.

"장로니여, 어서 오시오."

"다울리 언덕을 다녀왔습니다. 대왕님께서 칼을 버리시고 담마의 정복자가 되시겠다고 맹세한 다야강 강변도 걸어보았습니다."

"오, 상가밋따 장로니여. 그대들이 출가하여 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이오. 다만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가 없어 아쉬울 뿐이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께서 곧 아쇼까라마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오?"

"대왕님께서 석주나 바위에 담마칙령을 공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석장로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쇼까라마가 아직 완전히 정화된 것은 아니지만 강물이 흐르면서 스스로 맑아지듯 이제는 우뽀사타(포살법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힌다 장로도 그렇게 생각하오?"

"상가밋따 장로니의 말이 맞습니다만 아쇼까라마가 정화되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그러니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모셔와 하루 빨리 여법하게 정화하시오."

아쇼까왕은 마힌다에게 권유하기보다는 명령을 내렸다.

"예, 대왕님이시여, 당장 아호강가로 가겠습니다."

마힌다의 대답에 만족한 아쇼까왕이 상가밋따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다울리에서 무엇을 보았소?"

"대왕님께서 올해 지시하여 조성한 바위칙령을 보았습니다. 담마칙령들 중에서 불살생 계율이 돋보이는 바위 담마칙령이었습니다."

"담마의 실천자가 되려면 불살생부터 지켜야하지 않겠소?"

"대왕님이시여, 붓다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살생금지였습니다. 대왕님께서는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다울리 언덕의 바위에 담마칙령을 새긴 것은 재위 13년인 올해의 일이었다. 상가밋따는 다울리 바위에 새긴 담마칙령을 보고 나서야 아쇼까왕의 믿음을 확인했다. 다울리 언덕 바위의 각문은 다음과 같았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 담마칙령을 새기도록 명했다. 여기(마우리아국)에는 그 어떤 살아있는 생명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마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와 같은 사마자 집회에서 많은 악행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어떤 사마자는 허락한 것도 있다.〉



사마자(Samaja)란 왕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었던 축제인데, 아쇼까왕의 조부 짠드라굽따 왕과 아버지 빈두사라왕은 야생 황소, 코뿔소, 숫양 등의 싸움을 경연하는 축제를 매년 열었다. 이때 많은 동물들이 죽었으므로 아쇼까왕은 동물들의 싸움 경연대회 축제(사마자)를 금지하였다.

〈전에는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의 황실 요리실에서 매일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요리를 위해 도살되었다. 그러나 이 담마칙령을 공포한 지금에는 단지 3마리의 동물만이 도살되고 있다. 즉 2마리의 공작새와 1마리의 사슴이다. 그러나 이 1마리의 사슴조차도 정기적으로 도살되지 않을 것이다. 이 3마리의 동물들조차도 앞으로는 도살되지 않을 것이다.〉

또 아쇼까왕은 불살생의 계율을 넘어 백성들과 동물들을 위한 의료 진료소를 짓게 하고, 약초밭 조성과 목마른 행인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어 그늘이 드리워지는 시원한 쉼터를 만들게 했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의 왕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즉 쪼다, 빵디야, 사띠야뿌따, 그리고 저 멀리 땅바빵니(스리랑카)까지, 그리고 요나(그리스) 왕에게까지, 앙띠요까(시리아) 왕의 이웃 왕들에게까지, 어디든지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두 가지 종류의 의료 진료소를 짓도록 하였다. 즉 사람과 동물을 위한 의료 진료소였다.

사람과 동물에게 적합한 약초를 구할 수 없는 곳은 어디든지 약초를 가져다가 심도록 하였다. 어디든지 약초 뿌리나 약초 열매를 구할 수 없는 곳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심도록 하였다. 사람과 동물들의 이익을 위해 길을 따라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게 하였다.〉

마힌다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마하마따들 중에서 올해 담마마하마따를 처음으로 임명하시었습니다. 선발된 그들은 대왕님의 담마 정책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고, 담마를 증진하고, 담마를 실천하는 담마 대신(大臣)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렇소. 나는 담마마하마따의 임무를 규정하기 위해 바위에 칙령을 또 새기게 했소."

"대왕님의 담마칙령에는 붓다라고 명기한 각문이 드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모든 종교의 수행자들이 나의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오. 그들도 자기 절제와 청정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오."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담마마하마따(Dhammamahamata)의 역할을 규정하는 담마칙령은 다음과 같았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은 이와 같이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무언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왔다.

나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들 후의 대대손손 대를 이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만일 그들이 나의 모범을 따른다면 그들 또한 선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잘못을 짓는 것이리라.(중략) 담마마하마따는 하인과 귀족, 브라흐민과 장자들, 가난한 사람과 노인들, 담마에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 삶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복지와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일한다.

담마마하마따는 감옥의 죄수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일하며 또한 그들의 석방을 위해 일한다. 만일 담마마하마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면 이런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해 일한다.(하략)〉

상가밋따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다울리 언덕 바위의 담마칙령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저는 바위에 양각된 코끼리 머리를 보고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코끼리의 동그란 두 눈은 또렷하고, 콧속까지 깊이 판 코에서는 곧바로 다야강의 강물이 뿜어져 나올 듯했습니다."

"상가밋따 장로니여, 어째서 바위에 코끼리 머리만 조각하였겠소?"

아쇼까왕이 뜻밖의 질문을 하자 상가밋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마힌다가 대신 대답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만이 코끼리 몸을 꺼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끼리 몸까지 꺼내 볼 수 있는 자는 대왕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마힌다의 대답에 소리 없이 웃었다. 그날 아쇼까왕의 명을 받은 마힌다는 바로 강가강 나루터로 내려가 아호강가로 가는 상선을 탔다.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㉑ 하택종(荷澤宗)의 신회(神會)

▶ 한줄 요약
하택 신회에 의하여 혜능이 '육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조사선이 출현하여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육조현창 운동'으로 혜능 선사상 알려

〈六祖顯彰〉

동산법문(東山法門)은 당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창립자인 도신(道信)의 선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신의 선사상은 수대(隋代)로부터 불교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천태학(天台學)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새로운 사상적 관점에서 '오문선요(五門禪要)'로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천태학은 남북으로 2백 년이 넘게 분열되어 발전한 불교학을 모두 종합하여 '오시팔교(五時八教)'로 통섭(統攝)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교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신의 '오문선요'는 가장 긴요한 선요(禪要)만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사유양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주역(周易)〉으로부터 나온 '앎이 간결하면 행하기 쉬움'이라는 '지간행이(知簡行易)'의 사유양식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신을 계승한 홍인 역시 '수본진심(守本眞心)'의 핵심적인 사상을 제창하였고, 신수(神秀)도 '대승오방편문(大乘五方便門)'으로 그 맥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신수는 측천무후(則天武后)로부터 제도(帝都)로 초청되면서 이른바 "양경(兩京)의 법주(法主), 삼제(三帝: 睿宗·則天武后·中宗)의 국사(國師)"라고 칭해지며, 그의 사후에 제자인 보적(普寂)이 모든 승가를 통섭하는 지위에 오르면서 당시 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인의 또 다른 제자인 혜능(慧能)으로부터 수학한 신회(684~758)가 신수-보적 계열의 북종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혜능의 선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는데, 선종사에서는 이를 '육조현창(六祖顯彰) 운동'이라 칭한다.

신회의 '육조현창 운동'은 중국선의 정통성을 논하여 혜능을 중국의 '제6대 조사'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수대(隋代)로부터 도교(道教)에서는 종법제도(宗法制度)를 받아들여 도사들의 계보인 도통(道統)을 확립하였고, 또한 당대(唐代)에 들어서면서 유학에서도 도통설을 제창하였으며, 나아가 천태종 등의 불교 종파에서도 법계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중국선 계통에서도 법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당대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달마-혜가' 계통과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을 연결하여 '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의 '5조'에 이르는 중국선 법계가 출현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선 계열에서 '제6조'를 누구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정통성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적자(嫡子)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만, 나머지는 아무리 법이 뛰어나도 '산성(散聖)'으로 칭하며, 그다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회는 자신의 스승인 혜능을 '육조'로 받들기 위해서 심지어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도 날조하였는데, 결국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혜능이 '육조'로 공인되었으며, 후대에는 홍인 문하로부터 발생한 북종선 등의 기타 계열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혜능의 남종선 계열로부터 '조사선'이 일어나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던 것에는 바로 하택 신회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하택 신회의 생애와 '육조현창 운동'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신회는 후대에 조사선에서 '지해종도(知解宗徒)'로 폄하되었으므로 역대로 그의 저술 등이 사라졌으며, 〈송고승전〉 등에 전기가 실려 있지만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에 돈황(敦煌)에서 〈신회화상선화록(神會和尙禪話錄)〉 등의 자료가 발굴되면서 신회의 생애와 사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한 자료에 따르면, 신회의 속성은 고(高)이고, 양양(襄陽: 현 湖北省 襄陽市) 출신이다. 어려서 스승을 따라 유학의 오경(五經)을 배웠고, 그 후에 노장(老莊)에 확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한서(後漢書)〉에 실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열람하고서 본향의 국창사(國昌寺)에서 호원(顥元)의 문하로 출가하였으며, 다양한 경전을 외워 암송하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하였다고 한다. 〈신회화상선화록〉에 실린 〈대승돈교송(大乘頓教頌)〉의 서문에 "유치과(幼稚科)에 있을 때, 산을 유람하며 도를 찾았다."라고 스스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아주 어려서 출가했으며, 제방을 다니며 "열반본적(涅槃本寂)의 뜻을 물었으나, 모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혜능, 달마선 전정한 계승자"
신수 거쳐 혜능 문하서 수학
목숨 걸고 혜능 남종선 선양

후에 옥천사(玉泉寺)의 신수를 찾아가 그의 문하에서 3년을 시봉하였지만, 신수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명으로 제도(帝都)로 간 이후 조계의 혜능 문하로 갔는데, 이때 신회는 13세 혹은 14세의 어린 나이였다. 혜능의 문하에서 몇 년을 수학한 이후, "신회는 북으로 유행하여 견문을 넓혔으며, 서경(西京: 長安)에서 계(戒)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20세에 구족계를 받기 위해 북상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양경은 모두 신수의 제자인 보적을 중심으로 한 북종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회는 이 시기에 북종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후 경룡(景龍) 연간(707~709)에 신회는 다시 혜능 문하로 돌아왔으며, 이로부터 혜능에게 인가를 받고 은밀히 법을 부촉받았다고 한다.

혜능이 입적한 이후, 신회는 몇 년간 조계에서 활동하다가 개원(開元) 8년(720)에 황명으로 남양(南陽; 현 河南省 南陽市)의 용흥사(龍興寺)에 주석하였다. 이로부터 신회는 중앙정부의 고관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관련된 자료에는 호부상서 왕거(王據), 예부시랑 소진(蘇晉), 남양태수 왕필(王弼), 낙양현령 서악(徐嶽) 등과의 문답들이 보인다.



신회에 의해 혜능이 '육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조사선이 출현하여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사진은 선암사 조사당 혜능 선사 진영.

이렇게 중앙 고관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한 후에, 신회는 개원 18년(730) 정월 15일, 활대(滑臺: 현 河南省 滑縣) 대운사(大雲寺)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조계 혜능이 달마선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알렸다. 이러한 '무차대회'는 독고패(獨孤沛)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의 제목으로 전해온다. 이에 따르면, 개원 18년에서 20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여러 차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차대회에서 신회는 북종이 정통성을 가질 수 없는 까닭을 첫째, 북종의 사상은 "마음을 모아 정에 들고[凝心入定], 마음에 머물러 깨끗함을 간하며[住心看淨], 마음을 일으켜 밖을 비추며[起心外照], 마음을 포섭하여 안으로 증득함[攝心內證]"을 추구하는 법으로, 이는 결코 '돈오'를 표방하는 남종의 종지라고 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둘째, 달마대사가 법을 부촉하며 가사(袈裟)를 전했는데, 신수에게는 이 '전법가사'가 없으므로 정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선법은 "여래(如來)-가섭(迦葉)-아난(阿難)-말전지(末田地)-사나바사(舍那婆斯)-우바굴(優婆崛)-수바밀(須婆蜜)-승가라차(僧伽羅叉)-보리달마" 등의 "서천팔대(西天八代)"에 거쳐 전승된 사실을 신수가 알지 못하니, 정통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회가 제창하는 두 가지, 즉 '전법가사'와 '서천팔대'는 여러 정황상 신회가 날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후대에 비록 '전법가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양한 자료에 실려 있지만, 이는 모두 신회 이후의 자료이고, 또한 '서천팔대'는 그 기간에 문제가 있어 후대에 '서천 28대'로 확대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초기의 조통부법설(祖統付法說)이라고 평가되니, 신회가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상에 있어서는 신회의 주장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무차대회' 이후 신회는 천보(天寶) 4년(745) 병부시랑 송정(宋鼎)이 황제에게 상주하여 낙양 하택사(荷澤寺)에 주석하게 하였으므로 세간에서 '하택 신회'라고 칭하게 되었다. 하택사에 머물면서 신회는 〈현종기(顯宗記)〉를 찬술하여 혜능의 정통성을 밝혔고, 유명한 시인 왕유(王維)를 청해 〈육조능선사비명(六祖能禪師碑銘)〉를, 송정에게도 〈당조계능대사비(唐曹溪能大師碑)〉를 찬술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혜능의 정통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이러한 까닭에 종밀(宗密)은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에서 "천보 연간 초에 하택 화상이 낙양에 들어와 돈교(頓教)를 크게 일으키자 그때에서야 신수 문하는 방출(傍出)이며 법문은 점수(漸修)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돈(頓)·점(漸)의 두 종파가 동시에 유행하자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선별키 위해 남·북으로 표시하였는데, 남종·북종의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신회가 북종을 공격하자 북종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어 천보 12년(753)에 조어사 노혁(盧弈)은 신회를 무고하여 현종(玄宗)이 익양(弋陽: 현 河南省 潢川縣)으로 좌천시킨 이후, 계속 여러 사찰을 전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안사(安史)의 난(755~763)이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신회를 청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도승(度僧)하게 하고 향수전(香水錢)이라는 세금을 받아 군비에 조달하였는데, 이는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공로로 숙종(肅宗)은 신회를 궁으로 청하여 설법을 들었다. 이후 전란으로 소실된 하택사를 재건하도록 하였지만, 신회는 건원(乾元) 원년(758)에 형주(荊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입적하였다. 사후에 낙양 보응사(寶應寺)에 탑을 세우고 탑호를 "반야(般若)"라 하였으며, 시호를 "진종(眞宗)"이라 하였다. 이후 덕종(德宗)은 정원(貞元) 12년(796)에 칙령으로 선문 종지(宗旨)의 모범을 정하였으며, 전법(傳法)의 방계(傍系)와 정계(正系)를 가리게 하였고, 칙명으로 하택을 '제칠조'로 삼았다. 따라서 신회가 '칠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혜능은 '육조'로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하택 신회에 의하여 혜능이 '육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조사선이 출현하여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비록 신회의 사상을 논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회화상선화록〉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회의 사상에는 '돈오'에 철저하지 못한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후대에 선사들로부터 '지해종도'로 폄하되는 빌미가 되었지만, 신회가 평생을 목숨을 걸고 혜능의 남종선을 선양하기 위해 바쳤던 노력은 분명하게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 경기도 가평 사찰부지 28,768평 양도가 35억원
  부지 구입후 분할하여 생수공장 유치가능
- 동두천시 전철역 10분거리 사찰부지 350평
  양도가 3억9천만원(조금절충가능)
- 서울도봉구 도봉동 사찰부지 1,800평
  양도가 24억원
  전철역 10분거리 위치좋음

임법당 불단 / 석물일체 저렴하게 드립니다.
신화불사 010-6545-2020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⑳ 마하카피 자타가

▶ 한줄요약
547편의 팔리어 본생담 중 407번째 이야기인 '마하카피 자타카'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한 원숭이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교 초기부터 전해진 이 이야기는 스투와 석굴 등에 부조와 벽화로 재현됐다.



인간을 깨우친 원숭이 왕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훼손된 자연이 되돌려준 천재지변, 전쟁, 자원의 고갈과 식량난, 자국 우선주의 등 인간의 삶과 가치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현안 앞에서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솔로몬 왕에 견줄 만큼 지혜가 뛰어난 지도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 중에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의 행복과 안전을 끝까지 돌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는 목표로 삼은 왕을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추천하고 싶다.

경전과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이른 시기부터 불교에서도 살신성인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왕의 자질로서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왕을 깨우친 원숭이 왕 본생담' 은 547편의 팔리어 자타카 중에서 407번째 이야기 '마하카피 자타카' (Mahakapi Jataka, 큰 원숭이 본생)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다.



그림① 바르후트 스투파의 '마하카피 자타카' 부조. 콜카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림② 쿠차현 키질석굴 제38굴에서 조성된 〈미후왕 본생도〉 벽화. 6세기에 조성됐다.

"먼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마닷타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원숭이 무리를 거느리는 원숭이 왕이 있었다. 그 원숭이 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세고 위엄이 있어 8만 마리도 넘는 원숭이 무리를 이끌며 히말라야의 숲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갠지스강 주변에 있는 거대한 망고나무(암바나무, 니그로다나무)에서는 맛과 향을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열매가 달렸다. 원숭이 왕은 이 열매를 먹다가 아무도 이 신성한 나무를 발견하지 못하게 물 위의 가지에서 자라는 꽃을 모두 따서 열매가 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미집에 숨겨져 있던 열매 한 개가 익어서 강물에 떨어져, 멀리 하류로 떠내려가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렸다. 어부는 처음 보는 거대한 과일을 왕에게 진상하였고, 왕이 그 열매를 삼림관에게 보여주자 망고 열매라고 답하였다. 잘 익은 그 열매를 먹은 왕과 후궁의 여인들은 맛과 향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 맛에 홀린 왕은 삼림관과 함께 뗏목을 타고 강의 상류로 올라가서, 마침내 그 망고나무를 발견하고 망고를 배불리 먹었다.

자정이 되어 사람들이 잠들자 원숭이 왕과 그의 무리가 돌아와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이를 본 왕이 그의 궁수들에게 나무를 둘러싸고 원숭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자, 뛰어난 힘을 가진 원숭이 왕은 강을 뛰어넘어 망고나무에 닿을 수 있도록 긴 등나무 덩굴을 자신의 허리에 묶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망고 나뭇가지를 단단히 잡고 원숭이들에게 자신의 등을 밟고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건넌 악한 원숭이는 높은 가지에서 원숭이 왕의 등에 힘껏 뛰어내려 원숭이 왕의 등과 심장을 찢어놓고 도망쳐 버렸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왕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 원숭이 왕에 감동하여, 원숭이 왕을 구하려 하였다. 왕은 원숭이 왕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고,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신하를 끝없이 돌보아야 하며 나를 따르는 이들의 행복과 안전이 유일한 목표라고 답하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큰 깨달음을 얻은 왕은 원숭이 왕의 장례를 국왕의 장례식과 똑같게 치르도록 명령한 다음, 화장 후 남은 두개골을 금으로 장식하여 탑을 세우고 일생을 보시와 공덕을 쌓았다고 한다. 그때의 원숭이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왕은 아난이고 악한 원숭이는 데바다타의 전생이었다."

인간의 왕을 깨우치고 진리에 도달한 어진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 '마하카피 자타카' 는 불교미술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2~3세기경에 조성된 '바르후트 스투파' (Bhārhut Stupa)의 부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면의 중앙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강을 중심으로 원숭이 왕이 두 손으로 오른쪽의 망고나무 가지를 꽉 붙잡고 있으며, 등나무 줄기로 오른쪽 발목과 왼쪽의 나뭇가지를 단단히 묶은 모습이 보인다.

> 팔리어 본생담인 '마하카피 자타카'
> 백성들 위해 희생한 미후왕 그려내
> 불교 초기부터 전해진 붓다 본생담
> 스투파, 석굴 부조 · 벽화로 재현돼

오른쪽의 어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들이 왕의 궁사들이 쏘는 화살을 피해서 원숭이 왕을 밟고 강 건너 왼쪽의 나무로 도망치는 긴박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화면의 가장 위에는 데바닷타의 전생인 악한 원숭이가 원숭이 왕을 해치고자 높은 가지 위에서 막 뛰어내리려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원숭이 왕의 아래에는 자신이 이끄는 무리들을 위해서 등과 심장이 찢어진 원숭이 왕을 구하기 위해 왕의 신하들이 옷을 펼쳐 들고 있는 모습과 죽기 전 왕에게 왕국, 백성, 길거리를 지나는 흔한 수레까지도 그 모든 것에 행복이 찾아오도록 바라고 구해야 진정한 왕이라는 깨달음을 전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그림①)

또한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현 키질석굴 13 · 17 · 38굴에도 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벽화가 현존하고 있다. 이중 〈미후왕 본생도(獼猴王 本生圖)〉라 불리는 그림들 중에서 6세기경 그려진 키질 38굴의 벽화를 자세히 읽어보고자 한다.

마름모형의 화면 중앙에 과일나무가 있으며, 그 아래 푸른색 강을 가로질러 두 손은 나뭇가지를 두 발은 덩굴을 연결하여 길게 늘어져 있는 연갈색의 원숭이 왕이 묘사돼 있다. 그리고 원숭이 왕의 등을 타고 강 건너로 도망가는 파란색과 연갈색 두 마리의 원숭이와 이들을 노리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궁사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바르후트 스투파에서처럼 왕이나 악한 데바닷타가 도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살신성인이 잘 전달되고 있다.(그림②)

이런 '마하카피 자타카' 는 실크로드를 타고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달돼 그림과 경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오나라 시기 강거국의 승려 강승회(康僧會)가 한역한 〈육도집경(六度集經)〉 권 6 '정진도무극장(精進度無極章)' 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원숭이 왕이 되어 500의 원숭이를 데리고 유희하였는데, 어느 해 가물어서 여러 가지 과실이 넉넉하지 않았다. 국왕이 살고 있는 성은 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원숭이의 왕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왕실의 동산에 들어가서 과실을 먹으니 동산 지기가 왕에게 알렸다. 왕이 원숭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원숭이 왕이 과실을 탐하여 무리들을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며 자책하였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흩어져 칡을 구해 오라고 한 뒤 칡덩굴을 이어서 한 끝자락은 큰 나뭇가지에 매고 또 한 끝자락은 원숭이 왕 자신의 허리에 매고 나무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반대편 나뭇가지를 잡았으나, 칡이 짧았기 때문에 몸뚱이로 매달려 있어야 했다. 무리들에게 재촉하여 칡과 자신의 몸을 타고 건너가게 하였으나, 무리들이 다 도망간 뒤 원숭이 왕은 두 겨드랑이가 찢어져 물가 언덕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원숭이 왕이 깨어나 왕에게 말하길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국왕의 동산을 침범하였으니, 이 죄는 나에게 있고 나머지 무리는 용서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왕이 탄식하며 짐승의 우두머리도 몸을 죽여서 무리들을 구하는 옛 성현의 넓은 어짊이 있거늘, 사람의 임금으로서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탓하였다. 이후 왕은 원숭이의 먹이를 뺏지도 죽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원숭이의 왕은 석가모니이며, 국왕은 아난, 500의 원숭이는 500 제자의 전생이었다."

〈육도집경〉에 적힌 '왕을 깨우친 원숭이 왕 본생' 은 팔리어 본 '마하카피 자타카' 와 달리 공간적 배경이 히말라야 산속이 아닌 왕의 동산, 등나무 덩굴이 아닌 칡덩굴, 망고 열매가 아닌 여러 과일, 원숭이 왕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남, 8만 마리에서 500마리 원숭이, 악한 데바닷타가 등장하지 않는 등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이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자연 환경적 차이점에서 기원한 것으로,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따르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근본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전생인 원숭이 왕이 브라흐마닷타왕에게 이야기한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신하를 끝없이 돌보아야 하며, 나를 따르는 이들의 행복과 안전이 유일한 목표이다' 라는 말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불연 이기영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주형)에서는 불연 이기영(1922-1996)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보살사상과 재가불교』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11월 4일 10:00-17:30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불연 선생은 원효불교에 대한 온고(溫故)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불교를 지신(知新)하고자 시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도가 여전히 의미 있다고 믿으며, 한국불교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의 한국불교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보살사상과 재가불교
▣ **일시** : 2022. 11. 4(금) 10:00~17:30 ▣ **장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문의** : (사)한국불교연구원 02-762-5624, sdahn@snu.au.kr

시 간	내 용	발 표
10:00-10:30	개회사	안성두 (한국불교연구원장)
축 사		정문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1부 : 원효와 불교의 미래		사회 : 이태승 (위덕대교수)
10:30-11:20	[기조발표] '원효불교'의 재발견과 한국불교의 방향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11:20-12:10	현대 종교문화의 지형과 불교의 미래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
2부 : 요익중생과 보살사상		사회 :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13:30-14:20	원효의 「법화종요」와 요익중생	남동신 (서울대 교수)
14:20-15:10	원효의 보살사상	김성철 (금강대 교수)
3부 : 불연의 행적과 재가불교		사회 :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15:30-16:20	이기영의 재가불교 사상과 동아시아 근현대 재가불교 운동	원영상 (원광대 교수)
16:20-17:10	불연 이기영의 행적과 불교적 이상	임동주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17:10-17:30	폐회사	이주형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❸ 화엄경을 통해 본 대탑의 구조

▶ 한줄 요약
〈화엄경〉의 '십지품'은 보살이 부처가 되는 단계를 그려냈다. 이를 보로부두르대탑에 적용 · 비교하니 매 층에 내용이 연결된다.



화엄 '십지품', 대탑 모든 층 · 회랑에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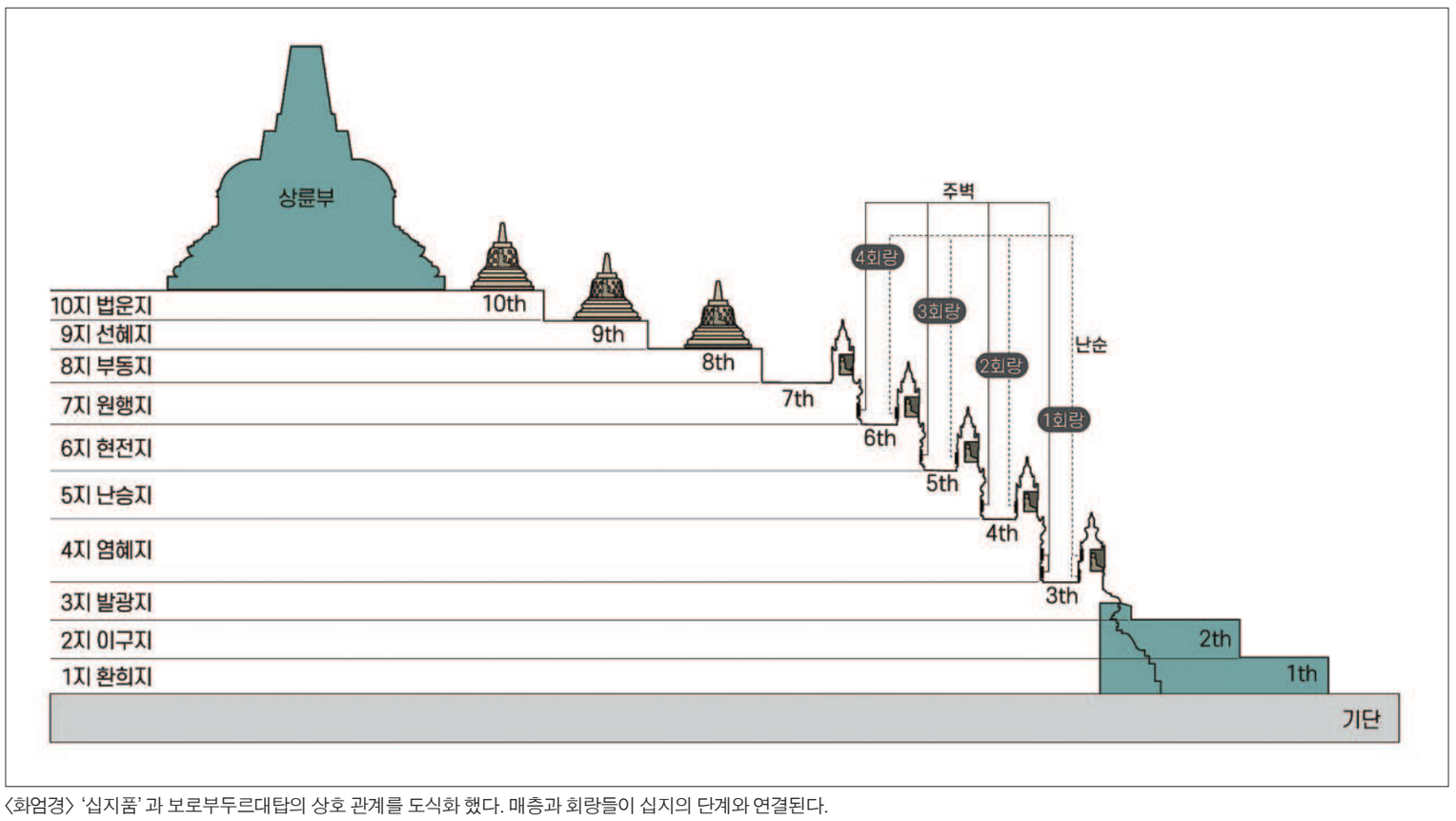
보로부두르대탑이 화엄탑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대탑 건립(775~835년) 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었던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의 수행 구조와 대탑의 10층 구조를 배대하고, 대탑 불상의 배치를 〈화엄경〉의 불타관 우주관에 근거해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탑의 4개 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화엄경〉의 수행 계위(階位)의 상관관계를 살핀다면 보로부두르대탑과 〈화엄경〉의 상관관계를 조명할 수 있다.

이번에는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수행구조를 비교분석해 일치함을 들어내어 대탑이 화엄탑임을 드러내고자한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스크리트본 〈화엄경〉과 내용의 동질성을 보이는 80〈화엄경〉을 분석의 저본으로 활용할 것이다.

〈화엄경〉에서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의 수직적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10'과 연관하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십(十)'은 '화엄의 수'이다. 또한 일체를 '10'이라는 숫자로 보이고 있으니 '10'은 원만 수이기도 하다. 그중 〈화엄경〉에서 전체 내용과 구조를 아우르는 '10'은 '십지품'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80〈화엄경〉의 39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1품에서 제6품까지는 화엄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경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7품에서 제26품까지는 기본적인 수행 세계인데 그중 제7품에서 제25품은 제26품인 '십지품'에 포함된다. 제27-37품까지는 그 전 '십지품'까지 진행된 수행 체계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제7품 여래명호품에서부터 '십지품'까지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38품인 이세간품은 제27품에서 제37품까지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구성이다. 마지막 39품 '입법계품'은 제1품에서 제38품에 내포된 수행 체계와 형식적 구조 측면, 상징적 의미 측면에서도 모든 품을 망라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면, 26품 '십지품'은 1품에서 38품까지의 핵심 내용으로, 〈화엄경〉을 대표하며 동시에 39품 '입법계품'과는 수행 체계와 구조적 측면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화엄경〉 '십지품'과 보로부두르대탑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 했다. 매층과 회랑들이 십지의 단계와 연결된다.

80〈화엄경〉 저본으로 대탑 층 분석
탑 1~10층, 십지품 단계와 연결돼
십지품 · 입법계품 이중 표현되기도
대탑, 보살이 부처되는 과정 담아내

보살이 부처에 이르는 길 '십지품'

'십지품'은 보살이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부처에 이르는 길을 10단계 즉 '10지'로 설하고 있다. '십지품'은 〈화엄경〉의 전체를 대변하는 품으로 각 계위인 '지(地)'를 보로부두르대탑의 각 층과 비교해 일치 정도에 따라 대탑이 '화엄탑'이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더해 질 것이다.

'십지품'의 초지 환희지(歡喜地)는 보살 세계로의 입문으로, 보로부두르대탑의 1층과 대응된다. 대탑의 1층은 범부의 세계에서 불보살이 상주하는 시방세계의 입문을 뜻한다. 1층 〈분별선악보응경〉 내용의 부조상의 특징은 한 장의 부조상에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좌우로 분할해 동시에 보여줌으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해서 선업을 쌓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지 이구지(離垢地)는 대탑 2층과 대응된다. 2지는 십불선업도를 멀리하고 십선업도법을 받아 행하는 단계다. 대탑의 2층 외벽 4면에 신상을 소재로 한 부조상이 조성되어 있다. 내용파악이 쉽지 않으나 십지품의 수행 계위 2지를 표현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3지 발광지(發光地)는 대탑 3층과 대응된다. 2지의 보살은 유의법의 실상이 무상함을 알고, 이행섭과 인욕바라밀을 주로 행한다. 대탑 3층은 주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현세 이야기 120장면이 주벽 상단에, 주벽 하단에는 본생담 120장면이, 난순에는 본생담을 소재로 372장면이 난순 상단에, 128장면이 난순 하단에 조성돼 있다. 발광지의 보살이 유의법의 실상을 알고 부처님의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은 부처님의 전생과 현생의 행과 배대되고 있다.

4지 염혜지(焰慧地)는 대탑 4층 2회랑과 배대된다. 이곳 염혜지에서 수행 보살은 10가지 지혜로 안법(內法)을 얻어 몸, 마음, 법을 두루 따라 관찰하고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위 4지의 내용은 대탑 4층 2회랑 주벽 128장면에서 53선지식을 친견해 법을 구하는 선재동자가 선지식으로부터 보리행과 보리도를 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5지 난승지(難勝地)와 대탑 5층 3회랑과 대응된다. 세친은 5지의 구성을 6지와 같은 것으로 세간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부주(不住)의 의미를 부여했다. 3회랑은 미륵보살이 선재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들(주벽 88장, 난순 88장)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1회랑 2회랑 그리고 4회랑의 입법계품의 52계위 설명의 완성도를 위한 공간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으나 부주의 의미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상응시킬 수 있다. 한 층에 십지품과 입법계품이 동시에 표현된 공간으로 사료된다.

모든 층 · 회랑 '화엄경'과 연결

6지 현전지(現前地)는 대탑 6층(4회랑)과 대응된다. 현전지보살은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지혜가 다 나타나는 지위이며, 부처님의 보리를 따른다. 또한 이승(二乘)의 길을 여의고,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며, 보리분법을 항상 행하고, 반야바라밀행이 증장된다.

4회랑에는 입법계품의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이야기가 주벽 72면, 난순 88면 부조상으로 설치돼 있다. 6지는 십바라밀 중 지혜바라밀의 수행이 주요 수행으로 53번째 마지막 선지식 지혜제일 보현보살로부터 선재동자가 보리도의 가르침을 받는 내용과 일치된다. 3회랑과 같이 십지품과 입법계품의 이중적 표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7지 원행지(遠行地)는 대탑 7층과 배대된다. 7지의 수행자는 매우 깊고 멀리 번뇌를 여의고 법을 구했으나 그 법에 집착한다. 비록 실제를 행하지만 증득하지는 못했다.

7층은 대탑의 다른 층과 다르게 부조상이 없다. 그러나 외벽 감실에 설치된 부처상들의 수인이 6층까지의 부처상 수인 체계와 다르다. 외벽 동서남북 한 면에 17불상씩 설법인 부처상이 총 72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7층 전 방향 같은 수인인 설법인 부처상은 아래 단계와 달리 7지에 이르러 스스로 수행에 의해 번뇌를 떠나 적멸 선정에 들어 방위를 떠난 거의 부처의 단계로 7지와 상응한다.

8지 부동지(不動地)와 8층은 배대된다. 세친에 의하면 8지 이상의 보살은 붓다의 속성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을 뿐 그의 수행은 붓다의 신통과 지혜를 갖추고 불국토에 법신을 나툰다. 이 부동지는 자신의 수행 과보와 부처의 위신력으로 이뤄진 단계로 대탑의 8층과 연결된다. 8층은 7층까지의 방형 구조와 외벽 탑 속 부처상을 모시는 구조와 달리, 주벽과 난순이 없이 8층을 전부 아우르는 큰 원단으로 이루어졌다. 그 위에 32개의 불탑이 가장자리를 따라 원을 그리며 자리하고 있다. 8층, 9층, 10층이 원형탑 구조로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이다. 방형과 다른 구조로 수행 보살의 경계를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9지 선혜지(善慧地)와 대탑 9층은 상응한다. 9지의 보살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잊지 않고 중생에게 한량없는 법문을 전달한다. 9지에서는 해탈 후 중생을 위한 자비를 중시한다. 9지 선혜지는 24불상이 모셔진 탑이 있는 9층과 대응되는데, 8층과 같은 맥락이나 정상까지 점점 좁아지는 구조상 불탑이 적을 뿐이다.

10지 법운지(法雲地)는 대탑 10층과 상응한다. 10지의 보살은 모든 부처님이 가진 광대한 지혜에 능히 들어가며 해탈문, 삼매문을 얻는다. 여래의 10가지 힘을 구족해 부처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지혜와 삼매 · 다라니 · 신통이 이전 계위의 보살들과 비할 수 없이 크며 그 상징으로 연꽃좌가 생겨나고 보살은 그 곳에 앉아 일체 붓다를 친견해 광명에 의한 가피로 여래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한다.

대탑의 정상인 10층은 16개의 불탑이 원형을 유지하며 자리 잡고 있다. 십지의 마지막 계위인 법운지는 보살의 신통력과 자제함은 보살 계위의 최절정으로 대탑 정상과 배대됨은 자연스럽다. 또한, 정상의 확 트윈 전망은 시방세계에서 온 대보살들이 모이는 법운지와 최적의 배대라 하겠다.

〈화엄경〉 '십지품'은 〈화엄경〉의 대표 품으로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수행 계위를 10단계로 나눠, 그 내용이 입체적이고, 수직적이며, 구체적이다.

화엄의 10지를 대탑 10층과 배대한 결과 대탑의 3회랑 4회랑은 입법계품의 수행계위를 표현하기 위한 부조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십지의 각 지가 가지는 수행계위의 의미는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이는 대탑의 10층 구조가 〈화엄경〉 '십지품'의 수행 계위를 의도적으로 적용한 '십지탑' 즉 '화엄경탑'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아제여행사 대표〉



네 가지 책임 맡은 대승보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㊶ 대승보살의 책임

〈원문〉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은 원력의 대지(大地)를 만들어 그 위에 네 가지 책임을 맡습니다. 그 네 가지 책임이란 선지식을 떠나 정법이 아닌 것을 들은 중생들을 인간과 천상의 선근으로써 키워주고 성문(聲聞)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에 맞는 것으로써, 연각(緣覺)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각에 맞는 것으로써,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에 맞는 것으로써 각각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의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원력의 땅을 만들고 네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는다면 널리 중생들의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큰 자비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 세상에서 법(法:진리)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강설〉 〈범망경〉이나 〈심지관경〉 같은 경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대지(大地)에 비유하여 심지(心地)라는 말을 쓰고 있다. 또 예로부터 천지(天地)의 덕(德)을 부재지덕(覆載之德)이라 하여 하늘은 만물을 덮어주고 땅은 만물을 실어준다고 하였다. 대지가 만물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 장(章)에서는 대승보살의 책임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하고 있다. 대지가 일체 만물을 실어주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바다, 산, 초목, 중생이라 말하고 그것에 비유하여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네 가지 책임을 맡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정법을 거두어들이려는 대승보살이 실천해야 할 일이다.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 정법을 듣지 못한 불우한 중생들에게 선근을 심어 키우게 해 인간세상과 천상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고, 성문과 연각 이승(二乘)들에게는 그들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쓰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법으로써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심어주는 일이다. 부처님 법에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不能度無緣衆生)' 는 말이 있다. 〈증일하함경〉에는 부처님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중생들을 믿음의 땅 위에 서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큰 자비로 세상을 위해서 법의 어미니(法母) 곧 진리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말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불모(佛母)라는 말처럼 쓰인 법모(法母)라는 말이 대승보살의 지극한 서원에 의해서 나온 말이다.

원래 불모(佛母)나 법모(法母)는 모두 바라밀다의 공덕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대반야경〉에 나오는 말로 "매우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선한 법의 모태이니 모든 바라밀다의 수승한 공덕을 낳는다" 하였다. 또한 법모라는 말은 법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여 어머니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이를 법모라 하는 것이다. 법모가 되겠다는 승만 부인의 원력은 대승정신의 표본이다. 대승의 수행에는 반드시 이타(利他) 원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불보살이 과거 인위(因位)에서 성취하고자 굳게 맹서했던 본원력(本願力)을 대승의 수행자는 모두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력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그리하여 원력은 불가사의하다 말해 왔으며, 또 원력에 의하여 정토를 성취한다고 하여 원력성취정토(願力成就淨土)라 하였다.

〈승만경〉은 승만 부인의 원력성취를 부처님으로부터 인증 받는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중생을 위한 대비원력으로 정법을 거두어들여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해 중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원이 부처님의 본원력을 방불케 한다. '청하지 않는 벗이 되겠다' 는 말도 이색적인 말이다. 상대방이 청하지 아니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 선우(善友)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成佛, 스스로 진여본성 발현시키는 것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㊹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들어가는 말

불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의지하며 기도 수행을 하는 신행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불교의 신행 활동을 통해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병장수의 건강이나 가정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와 남편의 사업성취 등 개인의 소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현실적 목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겠지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성불입니다. 즉 해탈 · 열반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불이란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는 청정한 진여본성을 자기 스스로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참 나의 실상을 밝혀 청정한 진여본성과 마음이 상응하게 만들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불은 중생 누구나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청정한 진여본성을 회복하여 완전무결한 자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윤회의 원초적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자유인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의 길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법에 맞는 수행을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평범한 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믿음과 인욕과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성불을 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행법으로 참선 · 염불 · 주력 · 간경 · 사경 · 절 · 지관 · 위빠사나 · 조사선 등의 실천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진심법문에서는 여러 수행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선, 그 중에서 선정과 삼매를 이룰 수 있는 5가지 인연 조건들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몸과 호흡과 마음의 조절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참선과 선정 수행의 5가지 조건

불자 여러분! 참선과 선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인연 조건, 즉 5가지 환경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중국의 천태 지의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계청정(持戒淸淨)으로, 계(戒)를 청정이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식구족(衣食具足)으로, 먹고 입는 의식에 대한 환경을 구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거정처(閑居靜處)이라고 해서 수행하기 좋은 고요하고 청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식제연무(息諸緣務)인데 불필요한 모든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득선지식(得善知識)이라고 해서 훌륭한 스승을 항상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펼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를 청정히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올바른 선정(禪定)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재가불자들은 재가불자의 오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먹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계(破戒)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제천 선신 성현들이 노하여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참선이나 선정 수행이 잘 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선정 수행을 얻기 위해서는 제천선신들의 가피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리어 파계하여 선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선정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계율을 어기면 참선이나 선정 수행을 할 때 불보살님이나 제천선신의 가피력은 고사하고 도리어 마(魔)나 귀신들이 치성하게 침범하여 수행자를 '주화입마' 상태로 만들어 정신이상자나 폐인으로 만들어서 한평생의 수행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대 계율을 어기는 파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㊶ 불의 비유와 밧차곳따의 경 2

"던져버릴 것 없으니 던져버려라"

"밧차여, 그대 앞에 불이 꺼질 때, '그 불은 이 곳에서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밧차여, 그 물음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존자 고따마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풀과 섶의 땔감을 조건으로 타오르고, 그 땔감이 사라지고 다른 땔감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양분이 없으므로 꺼져버린다고 여겨집니다."

"밧차여,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물질로써 여래를 묘사하려고 하지만, 여래는 그 물질을 버렸습니다."

가져본들 쓸모가 없고 버려본들 잃었다고 할 것 없지만, 뭇 삶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면서 괴로워한다. 뭇 삶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유전(流轉)했지만, 다시 수많은 세월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 한다. 삼계에 그 무엇도 오고 가는 것이 없지만, 물질을 '나' 라고 하는 한 생각으로 물질이 오고 간다고 믿고, 오고 가는 뭇 삶이 되어 버린다. 뭇 삶은 오고 가는 것이 자신이 상상으로 지어낸 토끼뿔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실처럼 알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본다. 다행히 토끼뿔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장애가 따르게 된다. 듣는 뿌리가 견고하여야만 흔들림 없이 바르게 들을 수 있다.

이 세계가 상대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없이 살며 의식 속에 그려놓은 그림들에 마지막 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뭇 삶은 수행이든 삶이든 마지막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일은 붓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지 못해 오고 감이 그치지 않는다. 붓을 던져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오고 가는 일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뭇 삶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한다. 생명체가 추구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상대가 있는 비교에서 생기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다면 아마 생명체로 아무리 반복해서 태어남을 경험하더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무엇을 찾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찾는다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알면,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괴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찾는다는 것을 자세히 숙고해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계속 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찾을 것 같은 마음은 생겨나지만, 조금 앞으로 나아간 것 때문에 일어난 착각이었고, 그 착각은 계속되어 결국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던져버리는 것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고 강하고 확고하게 대답하지만, 던져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던져버리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던져버릴 것이 없으니,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의 위험은 위험이 있어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我]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我]다' 라고 하면 꼭 무엇을 소유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소유의 마음은 존재성을 가져버린다. '버려라' 라는 말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꼭 해야 하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듣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고민하는 행위의 주체가 망념과 망상으로, 허우적거리며 연기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꼭 자기 일처럼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드러내어 알지 못하면, 계속하여 반복하는 수행 아닌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던져 버리고 나니, 던져 버린 것 어디에도 없었고,
던져 버리기 전의 고민 헛생각인 줄 아네.
듣는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 없으면
드러나는 일, 찰나(刹那)라고 할 것 없이 드러나 있었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10호 | 17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1주일에 1회 개별 책임교육
◈ 불교 비급전수
◈ 3주후부터 상담가능

정 광 합장
(동국대 대학원 석사졸업)

전화 010-3936-2295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 •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행자 하실 분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 강서구
보시는 상담후 결정
• • •
010-3570-014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사주명리, 상담 가능한 "비구니스님 및 보살님" 특별대우로 모십니다.

대전시내 중심 원광사 ◈ 출가자 상담환영 ◈

042)252-2034, 010-3422-3232

관상(손금) 성철 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묘터 물 찬곳, 암,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상, 배우자가 일찍 죽을상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공무원, 일반인 특별개인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구성학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빙의로 몸이 항상 아프신 분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 특별 비법 지도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상술 비법 전문지도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부산) 전화 : 010-4413-3377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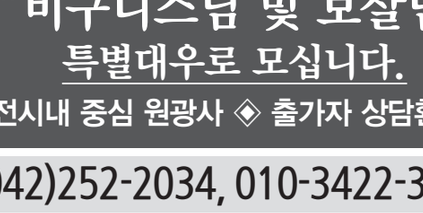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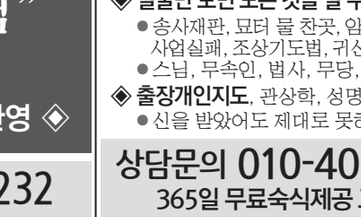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0호 | 18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사천 넓은 도량 사찰입니다.
- 부지 총면적 : 54,944㎡(16,620평)
- 건물 총면적 : 269.95㎡(81평)
- 가액 : 15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신도시
- 사용대지 : 250평 중 개인땅 93평
- 산속에 아담한 암자
- 가액 : 3억5천만원

010-3497-147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6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 스님 노환으로 급 양도
- 시내 인접, 집기 무료 제공
-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찰(3,4복층)안내

- 위치 : 김해시 내외로11번길 3-19
- 3층 : 넓은 법당(옥향로, 촛대, 공양기) 시설완벽, 스님방, 넓은주방, 화장실
- 4층 : 아주 큰방1, 작은방2(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시설비 일체 : 1천5백만원
- 비품 일체(5백만원상당) 무료제공
- 스님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010-5458-29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7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2백만원 (2개월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대지 1600평
- 건평 100평(대웅전, 요사채, 사무실)
- 산세 수려한 청정지역
- 주차장 완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월출산 절터 안내

① 위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40, (답 197평), 21년 10월 진입로 포장(폭4m) : 건축가능, 연중 마르지않는 산 샘 : 단독사용
② 남산리내(전512평) : 청정계곡, 주변마을 없음
③ 합계 : 5천만원

010-3921-75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5억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5년간 분할상환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010-9647-0723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 절터, 산소자리 적합
-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3억원

010-4835-1739

포 교 원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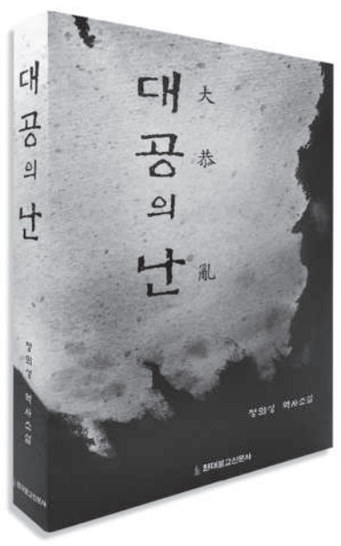
- 위치 : 안양 명학시장 2층 약 50평
-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 법당, 주방, 침실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협의가능

010-5495-46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산(큰 도로변 2층)
- 사찰 이전관계로 급 임대
- 보증금 : 3천만원 월 : 110만원(부가세포함)
- 시설비 상담 후 조정

010-6302-3823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⑳ 한방차의 좋은 점 2

한방차 한 잔, 건강한 면역력 만들어

요즘에는 연세가 있는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유 없이 소변을 잘 못 본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과잉된 고단백 위주의 식단과 당분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식생활로 인해 스스로는 모르는 이유로 신장 기능의 저하와 신장결석과 요로결석 등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은 관계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 방광의 열을 없애주고 음부의 습진에도 효과가 있으며 소화기능과 간을 맑게 해주는 녹차와 보이차, 우롱차 그리고 지부자(대싸리씨)와 야관문 결명자차를 권한다. 사각의 작은 결명자씨앗은 위와 간의 열을 내려주고 보호해주며 또 다른 혈관의 염증과 후유증을 예방한다고 〈동의보감〉에 실려 있다.

붓기차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다. 호박과 팥을 이용하여 차를 만들었다. 바로 현대인들의 열광적 관심이 다이어트 디톡스 아토피 해독을 위한 차이다. 필자 또한 붓기로 인해 고생하며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호박팥차라는 차를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대용음료로 권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남들이 좋다면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병에 걸리는 것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병이 나는 음식과 음료, 물 그리고 과당의 차, 지나친 염분,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현대인들의 열광적 관심인 다이어트의 핵심은 습을 제거하고 이뇨 역할을 잘 하며 때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한방차는 몸에 있는 지방질을 분해하고 수종을 없애며 소화불량 관절염 관절통 근육경련을 치료하며 말초신경을 이완·수축시키는 효능 등이 있다. 영지버섯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심장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한방차를 법제할 때 반드시 국산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한방차에 많은 양을 사용한다. 계속 불어나는 체중을 빼는 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추천하는 한방의 차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내면과 건강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토불이라 해서 우리 몸에는 반드시 우리 것이 최고다. 필자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속이 아파서 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위장의 소화가 되지 않는 분을 위하여 된장차를 권한다. 밥숟가락 하나 정도(800ml)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된장을 풀어 작은 잔에 천천히 된장차를 만들어 음미해 보기를 바란다. 위는 편안해지며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귀차 계피차도 장의 운동을 도와 변을 편안하게 하며 활혈작용으로 변을 부드럽게 한다.

현대인들의 잦은 외식문화로 인해 입안이 심하게 헐고 열이 나며 창이 많이 생기는 입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입병은 생기면 식사하기도 이야기하기도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연고와 약을 이용해도 쉽게 재발하며 잘 낫지 않는다. 심열이나 위열로 인해 생기는 사람들에게 〈동의보감〉에서는 음을 보호하고 열을 내리게 하며 입안이 허는 것을 잘 낫게 한다고 설명한다. 바로 생지황과 당귀 감초이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당귀 또한 모든 병에 도움이 되는 감초와 단짝인 듯하다. 생지황은 수분이 매우 많다. 몸에 열이 많고 잘 붓는 분들에게 생지황을 찌어서 밀가루와 반죽해서 붙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몸속의 독소가 많이 빠지는 것을 실제로 임상을 통해 경험했다.

겨울에 마시기 좋은 차는 단연 대추차이다. 양성적인 신경쇠약을 다스리는 데 아주 좋은 약차이다. 열이 위로 상기되거나 화를 잘 내며 흥분을 잘하고 안절부절하며 긴장 초조 불안증으로 늘 부정적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 이들과 입 안이 쓰고 입이 잘 마르며 변비가 있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에게도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산조인 대추차이다.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며 별일도 아닌데 신경질을 내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한방차이다.

연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차는 오가피와 엄나무 속단 산수유차이다. 허리통증이 몹시 심하고 움직이면 다리까지 당기며 아픈 증상이 있으며 허리가 며칠간 아프다 통증이 가벼워지며 몸이 허약하거나 허리를 약하게 타고난 선천적 신경증세를 앓고 있는 이들이라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기를 돋아주고 혈을 원활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신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무릎과 다리에 탄력을 좋게 하며 연골과 골절이 시리고 아픈 것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서는 설명한다. 현대인들은 영양소는 과잉이며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누적된 활성산소와 프리레디칼 현상으로 인해 혈액이 오염되어 림프액과 골격마저 병이 든다. 그리고 먹은 음식들은 생각으로 에너지를 다 태우다보니 몸속에 음식의 독소가 많이 채여 있다. 바로 활성산소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이 된다. 이처럼 반복적인 식습관에 몸은 지쳐가고 마지막인 뼈와 골절마저 젊은 시절부터 아파 최근에는 20대 청년과 미혼의 아가씨들이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시급한 섭생의 문제점들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몸이 병드는 이유와 차를 마셔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벌써 1년 가까이 이야기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많은 지인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약차와 한방차를 마시도록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 졌다. 차를 마시는 일은 일종의 디톡스이며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순히 예전에 생각하는 티백용으로 한 번 대접용으로 버리는 차의 경지를 넘어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갑옷 같은 존재가 차이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할 것이다. 바람은 더욱 우리의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한 잔의 따뜻한 차는 우리의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 시켜주며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 줍니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⑳ 물에 따라 달라지는 소금제조 방법과 소금

내가 먹는 소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금을 만드는 소금물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세계 곳곳에서 짠 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만들지만, 짠물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기에 소금물이 달라지면 소금을 만드는 방법 또한 달라진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소금을 만들지만, 그 소금 만드는 방법과 결과물인 소금은 다 다르고 그 다른 소금을 먹고 살고 있다.

서해 바닷물과 동해 바닷물이 다르고, 산중의 짠 호숫물과 일반 바닷물은 다르다. 지하에서 솟아나는 짠 물과 깊은 바다 속을 흐르는 해양심층수는 다르다. 왜 짠물이면 다 같은 짠물이 아니고, 소금을 만드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할까? 물이 다르기에 우리의 염전과 중국의 염전이 다르고, 멕시코의 염전과 페루의 산중 염전은 그 모양과 소금제조 방법 또한 달리 한다.

중국의 염전은 깊고, 한국의 염전은 얕다. 티베트의 염전은 물을 다 말린 후 소금을 수확하지만, 한국의 염전은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소금을 수확한다. 라오스의 산중에서 짠물을 가지고 솥에 바로 넣어서 끓여 소금을 만들지만, 한국의 바닷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차이는 그 짠물의 성분 차이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미네랄의 차이에서 소금 제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서해 바닷물은 염도가 2.8% 정도로 보통 낮다. 중국과 한국의 강물에 의해 희석이 되어 있고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많다. 반면 동해는 바다가 깊고 염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산중에서 솟아나는 짠물을 이용하는 티베트나 페루의 염전은 그 짠물이 염화나트륨 중심의 물이어서 다른 미네랄 함량이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염전의 물을 말려서 소금으로 전부 수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쓴맛을 내는 마그네슘도, 강한 짠맛을 내는 칼륨도, 먼저 가라앉는 칼슘도 이미 다 제거가 된 상태의 물로 염화나트륨만 남아 있으니 우리와 같은 염전 방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끝까지 말려도 수확하는 것은 염화나트륨 소금뿐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수확도 쉽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산중에서 솟아나는 짠물에는 그런 미네랄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다. 오랜 옛날 암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염화나트륨 중심의 암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소금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짠물을 평부솥에 그냥 넣어서 끓여도 소금을 만들기가 쉽다. 반면 우리나라의 바닷물은 사전 농축과정이 없이 그냥 끓이게 되면 칼슘이 소금 제조 용기에 들러붙어서 소금제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소금물 짠 물의 정체를 올바르게 알면 그에 맞는 소금제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이 다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물을 다 말리지 않고 소금을 수확하고 그 소금을 물이 빠지는 창고에 쌓아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해양심층수 소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양심층수는 깨끗함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그 제조 과정 역시 깨끗함을 기본으로 해야 마땅하다. 깨끗한 바닷물을 흙바닥에 뿌려 오염시켜가면서 소금을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해양심층수에는 미네랄 또한 많으므로 소금 제조 방법 역시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 풍부한 미네랄을 살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 미네랄을 기술적으로 제거하여 소금제조의 효율성을 살리든가 양자택일해야 한다. 오씨아드의 소금제조 방식은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방식을 택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제거하여 소금제조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제조방식에 따른 다른 성분과 특성을 갖는 소금이 각각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바닷물도 제조 방식이 다르면 소금 또한 달라진다. 천일염도 같은 염전이라고 봄에 나온 소금과 여름 소금이 다르고 또 가을 소금이 다르다. 그것은 햇볕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습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온교환막을 써서 기계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제염은 그 성분이 연중 일정하고 균일하다.

따라서 소금제조 방법은 소금물의 특성과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필요한 소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바닷물과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소금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소금은 다른 것이다. 짠맛이 난다는 공통점과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다른 미네랄의 함량과 입자크기, 모양, 수분함량, 불순물 함유량 등이 차이가 있어서 각각은 다른 소금이 된다.

완전하게 다른 소금 제조 방식



해양심층수 소금 제조



돌 염전 소금제조

필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소금을 수집해서 보관하면서 관찰하고 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소금은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소금이 있지만 딱딱하게 뭉쳐지는 소금이 있고, 습기를 머금고 눅눅해지는 소금도 있다. 밀봉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애초부터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관 후의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다.

소금은 다 다르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소금 제조방법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금물에 맞지 않는 제조방법은 소금을 망치고 제조효율을 낮게 할 뿐이다.

내가 먹는 소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미네랄이 얼마만큼 들어 있을까? 한번 쯤 고민하고 먹는 습관을 지녀보는 것은 어떨까? 매일 먹는 소금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만든다.

〈(주)오씨아드 이사〉

불교 디자인 현수막 및 각종 불교 용품 판매

원하시는 크기,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장주 (8m 100개 포장)





2023 불교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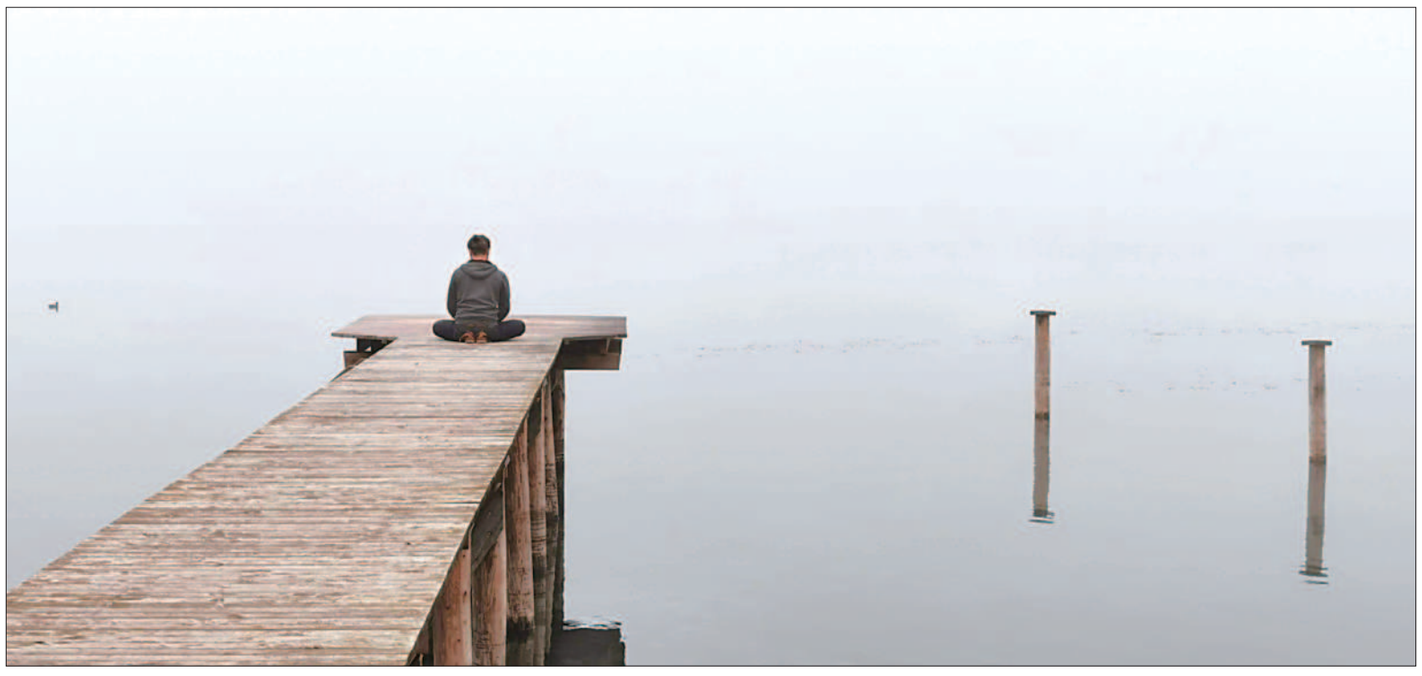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723-4303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❺ 마음을 관조하다

▶ 한줄 요약
모든 마음 현상의 이면에는 스스로가 원하는 감정이 들어 있다.

서운함 '돌봄받고 싶은' 욕구서 나와



삭발하는 날, 사제에게 부탁
"혼자 해도 돼요" 말에 상처
돌봄 받고 싶은 욕구서 출발
타인 돌봄, 스스로 치유기회

지금 안 먹으면 자다가 배고플 거야

명상수업은 매일 저녁 8시~9시 즈음 마쳤는데, 그때서야 저녁을 먹게 된다. 모두 채식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지만, 저녁을 먹기엔 늦은 시간이었다. 사실, 오후 2시 즈음 점심을 먹으니,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팠다. 어느 날, 저녁을 과하게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았다. '무엇 때문에 저녁을 과하게 먹지!' 그것은 '불안' 때문이었다. '지금 안 먹으면 자다가 배고플 거야!', '지금 먹지 않으면 내일 아침 배고플 거야!',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을 거야!' 등 불안 때문에 저녁을 필요 이상으로 먹었던 것 같다.

이후부턴 어떻게 달라졌을까? 놀랄 만큼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살은 더 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나도 모르게 썼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준 것 같다고 할까?

서로 돌보라는 의미 아닐까?

2018년 11월 어느 날, 한 비구니스님이 내가 진행한 명상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서 편안해하고 만족스러워했다. 스님은 그동안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중화시켜 주었다며 좋아했다. 스님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대중탕에 가서 몸을 이완하자고 했다.

평소라면 대중탕에서도 혼자 삭발을 했을 텐데, '스님이 혼자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며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었다. 그때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학인 시절, 인현왕후가 머물렀다는 낡은 요사채에 세면장이 있었다. 방학이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삭발을 했다. 그날도 삭발하는 날이었는데, 사제스님은 혼자 삭발을 잘했다. 혼자 삭발하는 것에 서툴렀던 나는 사제스님에게 "머리를 좀 깎아 주세요"라고 했는데, 스님은 "혼자 해도 돼요"라며 거절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말도 못했고, 서운하면서도 기분이 나빴다. 그때는 그 일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몰랐다가 그날 대중당에서 문득 깨달았다. 내 무의식엔 '돌봄 받고 싶은 욕구' 가 있었다는 것을. 나한테 삭발은 그냥 머리카락을 깎는 행위가 아니라 '돌봄' 의 의미였던 것이다. 이 자각이 생기자마자 나는 스님에게 삭발해 주면서 온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 대중과 함께 살라고 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나는 비로소 그때의 서운함에서 벗어난 듯했다. 그래서 사제님의 안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긴 문자를 보냈다. 대중탕에 함께 가자고 말해 준, 지금은 임종하신 스님께 감사하다.

줘도 지랄이야~!

의식 상태에 있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또는 언제인지를 숙고하는 명상 시간이었다. "줘도 지랄이야.", "귀찮쿠로~!", 그리고 '화' 가 연결되었다. 어머니와 한 명의 내담자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농사일이나 아버지 병수발 외에도 가사 일, 아이들 돌보기, 짐승 돌보기, 다른 집 일, 품앗이, 채소장사 등 무척이나 바빴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린 내가 젖을 달라고 보챘으니 얼마나 귀찮았을까! 어머니가 나에게 가졌던 마음과, 내가 내 내담자에게 가졌던 감정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상담 시간 내내, 내가 개입할 틈도 없을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한없이 쏟아내며 울었고, 귀가해서는 장문의 문자를 남기곤 했다. 나는 일일이 읽고 답해야 하는 것이 부담되었고, 상담의 연장처럼 느껴져 귀찮았다. 상담 시간은 지나갔는데 계속 자신을 돌봐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 상담자가 주는 사랑이 부족했다며, 왜 '더 돌봐 주지 않냐!' 고 보채는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화가 났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줘도 지랄이야!' 라는 내면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내 내면의 진실을 목격하고서, 내담자에게 가졌던 화를 이해했다. 나는 명상 상태에서 '○○야, 내가 널 귀찮게 여겼던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나는 너 말고도 다른 내담자들이 있고, 또 내 할 일이 있단다. 너만 늘 생각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란다' 라며 그에게 말했다. 그와의 상담이 종결되기 전에, 이러한 통찰이 있었더라면 상담이 더 잘 마무리되었을 것 같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명상 선생님은 내면의 고요한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 (자신이 인식하는 부분적인 자기 이미지 외, 무의식중에 동일시했던 틀이나 패턴, 보고 싶지 않은 그림자, 부정적인 감정이나 신념 등)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었다.

나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나-의식의 덫(자기 이미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다. 하나는 '항상, 계속, 지속' 으로 표현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절대 아닌, 결코 아닌' 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항상 비판하고 평가하며, 내면에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왜?' '버림받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요' 타인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면의 진실을 보면, 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는 프로그램(카르마)으로 종결되었다.내가 부정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 먼저,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서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놀랄 지경이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어린애가 아니야' '난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야' '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차가운 사람이 아니야' '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난 잔인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 정도의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난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을 인정하면 (내 이미지, 에고가) 무너질까 봐, 정말 나쁜 사람, 차가운 사람, 구걸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잔인한 사람, 이 정도 취급을 받을 사람, 약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것들은 깊은 무의식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금방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외로운 이유가 절에 살지 않아서거나, 혼자 상담 공부를 해서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내면의 진실은 내가 나-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리된 것이었다. 나는 '항상' 이나 '절대 아닌' 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뭐~ 이런 아~가 다 있노~!' '왜 감사함이 중요할까?' '왜 사람들은 감사함을 모를까?' 생각했다. 선생님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을 모르는지 명상하도록 이끌었다.

나는 명상하는 초반부터 졸음이 심하게 쏟아져 대충 참여했다가, 부모님, 형제자매, 도움을 주신 스님들, 교수님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보니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 부처님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늘 나와 함께했다는 것이 자각되었다. 부처님 집안에서 성장한 것, 부처님을 알고 출가한 것, 팔만대장경 전산화가 저절로 떠올랐던 것, 상담심리전문가가 된 것,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과정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엄청 귀찮았을 텐데 "뭐 이런 아~가 다 있노~!"하면서도 가슴(젖)을 내어 주었다. 어머니께 무한히 감사했다.

나는 내가 왜 혼자 노는 것을 선호했는지 이해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귀찮게 여길까 봐 그랬던 것이다. 나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도 싫고,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것도 싫었다. 나는 혼자가 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여길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졸음은 달아났고 눈이 번쩍 떠졌다.

웰컴, 아루나찰라

인도를 자주 방문했었지만,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쫓기듯이 한국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라마나 마하리쉬 아슈람이 있는 아루나찰나에 일주일간 머물기로 했다.

영적 수행자들 사이에서 아루나찰나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아는 비구니 스님이 그곳에서 거의 1년 동안 수행하며 머문다는 소식을 들었다. 혼자라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테지만, 스님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났다. 스님에게서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놀랄 만한 일이 생겨서, 우리는 매일 신기한 체험을 했다. 하루는 옆집에 사는 나이든 서양인 여성의 집으로 놀러 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정면 벽에 뱀과 한 남자가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은 내가 일주일 전 꿈속에서 봤던 모습과 비슷하게 보였다. 꿈은 이러하다.

초록색 체크무늬의 통통하고 잘생긴 아주 큰 뱀이 굵은 식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 어떤 30대의 모르는 남자가 그 식물 기둥을 잡고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언니와 나는 이 남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뱀이 이 남자의 손을 물어서 남자가 죽었으면~ 한다. 뱀이 어찌 그것을 아는지, 아가리를 크게 벌려 물려고 하고, 나는 물기를 바란다.

뱀이 '여기가 아닌가!' 하며 다른 손가락을 물려고 할 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아저씨 뱀 뱀 뱀 뱀" 하면서 알려준다. 이때 얼마나 '헉~!' 하고 놀랐는지 잠꼬대를 실제로 한다. 그런데

뱀은 애초부터 이 사람을 물 마음이 없었는지, 아가리만 최대한 벌리고 있고, 이 남자가 오히려 뱀을 잡는다. 이때 아버지가 등장해서 '통을 준비해야 하나...소주가 필요하나...' 하다가 다른 꿈 하나를 더 꾸다가 깼다.

이웃집 여성은 이 꿈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을 했다. 하나는 젊은 남자(시바신)가 웰컴 하며 나를 미리 '환영한다' 는 의미로 보았고, 다른 하나는 시바신이 뱀(ego)에게 휘둘리지 않고 '에고를 통제하는' 꿈이라고 해석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앞으로 에고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불지정론 유식품
佛智正論 唯識品

완전한 성불지혜 10종현상을 모두 밝힌
불지증입佛智證入 지혜총론이다.



- 오류잡설, 대승유식론 왜곡을 밝혔다.
- 무착보살, 세친, 원측 오류와 6조단경지혜를 점검했다.
- 정定과 혜慧의 지혜상승성불과정세계를 모두 밝혔다.
- 이입과 행입,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 성불의 보살지혜상승과정 실증세계를 모두 밝혔다.
- 아함경 불설 6식, 7식, 8식, 9식을 모두 밝혔다.
- 심관, 법성관, 본성관, 성시선 수행세계를 밝혔다.
-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부동열반지, 불지佛智의 실증지혜 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1권 1204쪽 / 2권 1176쪽
신국변형판 / 정가 각 8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대행 스님

한생각을 잘내면 부처요 한생각을 못내면 중생입니다

제대로 관하는 것인지…

질문 기복 신앙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관을 하다 보면 '주인공' 하고 부르면서도 내용은 기복적인 것 같아 제가 관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기복으로 빌고 있는 것인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관하는 것이 되는지요.

답변 이 원이라고 하면 언뜻 둥근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원심을 낸 거죠.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심성 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천문학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 내가 그 몸속에 있는 의식과 모두 합쳐 한마음을 냈습니다, 한마음으로. 원이라는 그 말이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 한마음을 냈는데, 한마음으로 내 가지고 보니까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되돌아가더란 얘기죠. 안에서 한마음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할 땐,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다 조절을 한다, 한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한마음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이 내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찾는 게 비는 거고 기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한테 찾는다는 것은 한마음으로 중심에 그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을 세운 그 마음 한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먼저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말을 해야 될 일, 요거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죽거리게 해야 될 일 등, 이렇게 각각 나가서 자기 소임을 완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당신네한테 구족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통신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배깁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속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죽여 버려야겠다.' 이런다면, 벌써 저쪽에서 '흥!' 콧방귀 탁 뀌고 '네가 날 죽여?' 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몰라도 본래 자기 속에서는 벌써 알고 '흥, 날 죽여?' 그러고선 오히려 댑다 그리로 몽둥이가 들어가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자비스러우면, 또 그걸 알면서도 몽둥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오히려 실의에 되빠져 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올라오도록 자비를 베풀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실천에 옮겨 보면서, 실험을 해 가면서, 체험을 해 가면서 자꾸자꾸 끝없는 길을 걸어야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선천적인 자기의 그 착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요 사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건지느냐, 아예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한생각을 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를 건지고 자식을 건지고 세세생생 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똥을 누나, 잠을 자나, 밥을 먹을 때나 주인공 생각만 나면은 항상 거기다 놓는 작업을 안 하고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내가 삼천배를 올려라, 기도를 하라, 정성을 들여라, 또는 몇몇 일을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 합디까?

여러분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중생이니까 '한 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 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그러니 잘해 봐라.' 이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 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랑스러운 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없다면 없는 거죠. 전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문제는 '너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얘기죠. 모두 각자, 너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딨습니까?" 하니까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번연히 이미 부처가 됐다고 하면서도 왜 부처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스님네든 스님네가 아니든 자기 그릇의 잣대에 대서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둥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 주고 아주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둥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모자라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허! 저게 내가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자랐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것입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전자에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자기 그릇에다가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선 '아휴, 저거는 그냥 천리만리 모자라.' 하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모가 나죠. 그리고 외면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렇죠.

그렇듯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중심, 자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감사하게 맡기고, 또 슬기롭게 맡기고, 또 굴려서 맡기고 이런다면 다 통신이 되죠. 사대로 다 통신이 돼요. 그러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또 너무 넘치는 거는 제거하면서 안과 밖이 다 잘 이끌어지죠.

누가 큰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속에서 허락을 안 하더랍니다. 아주 돈 벌기는 딱 참한데 허락을 안 하니까 그만 안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기 회사가 아니고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몇 사람한테서 먹어치웠더랍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자동적입니까?

우리는 어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믿을 데가 있죠?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 속에는 바로 콩씨가 들어 있듯이, 콩 싹에 콩씨가 붙어 있듯이, 여러분 몸속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 가고, 슬기롭게 이끌어 가고, 또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모든게 나로 인해 생겼으니 내 탓으로 돌리는게 우선이에요

☞ 21면에서 계속

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그 자동적인 오신통의 제일 중심에 숙명통이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숙명통의 컴퓨터에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입력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거기다가 또 맡기면 입력된 게 그냥 전체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새걸로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 해 본 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행주좌와 관법이란

질문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방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불, 참선, 간경, 기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큰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기는 행주좌와 관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희 초보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말입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행주좌와 관법이냐 하면 자기의 관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산된 이 육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잡아서 해도 그게 먹혀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겉돌아서요.

왜 겉도느냐. 세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는 모든 걸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데다가 핑핑핑핑 돌아가는 그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생한 것도 화두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관법을 또 받아 가지고 하니까 겉돌 수밖에요. 행주좌와 관법은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시대를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란 거지. 불을 밝혀서 앞장서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 중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이거 보세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지요. 내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아니,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이죠. 보세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한마음 처에 같이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삐뚤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럭하면 안 됩니다. 앉음앉음이가 굳어져서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인간도 마음의 오계에, 오계향(五戒香)에 첫째,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벼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든 일배를 올리든, 내가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넣고 일배를 올려도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하고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간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습을 녹일 수 있는 지름길

질문 주인공을 믿고 가면서도 내 습 하나 녹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습을 빨리 녹일 수 있는 지름길은 없을까요.

답변 지금 주인공이 모든 거 일거일동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그냥.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수레라고 했습니다, 수레!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간다.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굴리느냐? 바로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레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돌아가게 하는 그 불성 자체 기둥을 믿어야지 어딜 믿느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봉이 바로 너의 주인이지 어디 따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돌아가는 게 또 있으니까 '공' 이랬습니다. '주인공!' 하하하. 그래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랬지요. '그 가운데에 바로 부처는 있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뿌리만 안다면 모든 싹, 이파리를 다 거기 놓기 때문에, 그냥 병도 붙을 데가 없고 또 번뇌 망상도 일어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번뇌 망상이나 그런 것도 다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 속에다 되놓으면 됩니다.

이 습도 지금 입력이 돼 있거든요, 과거에 살던 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대로 자꾸 나오고, 또 이 바깥에서 자꾸 습이 들어가죠. 그래, 그 습을 떼는 게 아니라 '녹여라'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컴퓨터 얘기를 하고 그 입력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무조건 입력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습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그것이 나오는데,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 입력된 거를 듣느라고 버튼 누르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죠, 그게. 감겼던 게 나오죠. 나오는 거를 즉시즉시 거기다가 다시 놓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앞서 입력된 거를 없애려면, 이열치열이라고 하듯이 거기다가 되놔야 된다. 즉, 몸뚱이 속에, 얼른 쉽게 말해서 생명들이, 의식들이 몽땅 들어 있어서 의식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것이 업보니까 말입니다. 그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거기다 입력을 해 보세요, 그 속에다가. 그래서 '한마음 속에서,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주인공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되놔라 이겁니다.

기독교인이라 제사 안 지낸다는데

질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이 기독교인이라 제사를 안 지낸대요.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큰스님 가르침처럼 간단하게 상 차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어른들이 믿든지 형제님들이 믿든지 좋은 대로 생각하시고 좋게 사세요. 형님이면 형님 말끝에 "주처는 모두 개개인에 있으니까, 형님, 그렇게 해야 집안이 잘되지 않겠소." 하고 하든지, 또 손아래 동서면 동서대로 그럭하고, "제사는 안 지낸다, 조상들이 안 잡숫는다 하더라도 아래로는 교훈이 되고, 위로는 우리의 인연, 정성이 되니까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냇다, 봐라. 이게 뭐, 조상님들이 잡숫지 않으니 그냥 우리도 다 치워 버린다." 이럭하면 안 되죠.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하는 걸 봤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로 가르치는 데는 꼭 부모의 조상들을 잘, 그날을 잊지 말고 잘 챙기는 것도 교훈을 가르치는 거와 같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야 인연이 뭣인 줄 알고, 자비가 뭣인 줄 알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생시에 살아도 영령들하고 반반 섞여서 사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반반 섞여서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좀 그것을 뜻을 아는 사람은 꿈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논이 들어오지만 그걸 냉대하는 사람 앞에는 그런 의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반갑고 즐겁게 해 주세요. 그렇게 착하게 하면은 착하게 다 돌아옵니다. 모두 기독교를 믿든지 가톡릭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제각기 다 주처는 자기한테 있어요. 어느 강당엘 가든 법당엘 들어오든 항상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타파가 되도록 그 아들의 재사를 지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데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좋은 데로 태어나서 사는데, 어느 날만 되면 꼭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온대요, 꿈에.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자기가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삿밥을 먹고 오는데 그 하얗게 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를 보고 온대요.

그래서 이상스럽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스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걸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의 전생의 어머니다. 너를 낳아 주신 어머니다, 전생에서. 그러니까 꿈에 갔던 길을 찾아서 그 집 가서 봐라. 그날 가 봐라." 항상 몇 해를 두고 다녔으니까 길을 잘 알죠, 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집이 있더라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정말 그 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두 어머니를 챙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사는 것도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람다웁게.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그 밑으로도, 또 연방 뒤를 대서 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 그 좋은 집 가서 태어났겠어요? 또 자기가 그 과거의 어머니로와 현재의 어머니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하신 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 자식들에게도 연방 이렇게 실천을 하게 해 주신다면 돌에 갖다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뿌리에 믿고 맡기고
> 감사하게 슬기롭게 맡기고 굴려서 맡기고 이런다면
> 다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 그러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또 너무 넘치는 건 제거하면서
> 안과 밖이 다 잘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현불논단

다시 '문학 포교'에 관심을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종교와 문학, 同根서 나온 나뭇가지
불교경전들 산문과 게송으로 이어져
문장 하나하나 응축된 문학작품 같아
종교 · 문학, 보완 · 견제하며 발전해

현재 종교와 문학은 모두 위기 시대
불교, 포교 위해 문화예술 관심가져야
문화예술 전법 방편으로 문학 주목을

종교와 문학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나뭇가지와 같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유려하고 함축적이며 서사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경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와 문학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2500년 전에 전법을 행하신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경장(經藏)들은 한결같이 기승전결의 부드러운 흐름을 갖춘 산문으로 서술되다가 결말에 이르러 이를 함축한 아름다운 운율의 시와 같은 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의 경전은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현대적인 소설과 시, 수필과 동일한 문학적 형식으로 서술되는 웅장한 문학작품인 것이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 문학은 삶에 대한 교훈적 가르침이라는 소재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일견 종교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전지적 관점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예술 장르로서의 높은 가치는 여전하다.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수용한 간접 체험을 직관력의 영역으로 유입시켜 지식과 경험의 확장 수단으로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직접 경험한 것 못지않게 생동감 넘치는 언어와 문장으로 획득한 것이기에 단순한 암기를 통해 강제로 주입된 지식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텍스트로 서술되는 문학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경전을 우회하는 제2의 지혜의 통로와도 같은 순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학은 종교에 대해 경전만으로 채울 수 없는 개인적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보완재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문학은 작품을 통해 종교를 배척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화할 수도 있다. 반면 종교는 문학 작품과 작가를 이단으로 단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전에 버금가는 높은 단계의 예우를 베풀 수도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획득한 현대의 문학은 종교와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팽팽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관계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종교와 문학의 관계는 새로운 변곡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구의 감소와 문사철로 표현되는 인문학 분야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 온 것이다. 종교적 충성도의 하락이 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종교와 문학은 그 뿌리가 같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종교의 위기는 오히려 불교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절대적인 신이 인간의 삶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 연기법에 기반한 불교는 여전히 대칭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과 충돌하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불교의 가르침은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편을 활용해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방편으로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시기에는 먹을 것을 기르던 마당을, 풍요의 시대에는 아름다운 꽃을 가꾸며 정신적 위안과 함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다시 현대의 불교는 스스로 문화예술을 가꾸면서 조금 더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전법의 한 갈래로서 우리는 다시 문학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듯이 불교와 문단이 합심하여 정직한 언어와 유려한 문장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절망과 공포를 희망과 평화로 바꾸어 주는 새로운 문학을 길러내는 창작 인큐베이터를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길러진 문학작품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향유되고 작가와 독자들이 깊이 소통하는 문학 플랫폼을 구축해 불교문학 융성의 초석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제안해 본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⑧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회개와 회심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수리남'은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감독인 윤종빈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 황정민, 장첸, 박해수, 유연석, 조우진, 추자현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수리남'은 한국계 수리남 마약왕 조봉행의 삶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이다. 조봉행은 1980년대에 한국에서 선박냉동기사로 일했던 터라 8년 동안 수리남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그는 수리남 국적을 취득한 뒤 생선 가공공장을 차렸다. 이후 그는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에 손을 댔다.

그의 마약 사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자 2005년 인터폴은 수배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그가 한국으로 마약을 공급할 계획임을 인지한 국가정보원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작전을 통해 2009년 그를 체포했다. 조봉행의 체포에 어려움을 겪던 국가정보원에 도움을 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봉행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는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봉행을 잡는 데 협조했다.

이상 사실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수리남 마약왕인 전요환이 사이비 목사로 설정돼 있다.

'수리남'을 보고서 필자는 회개(悔改)와 회심(回心)에 대해 숙고했다. 드라마에서 사이비 목사인 전요환이 부하에게 "아직 회개가 덜 됐구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탄, 주님, 아멘 등 기독교 용어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김용규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에서 '죄인(罪人)'의 반대말은 '의인(義人)'이라고 정의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신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 내지는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서 돌아선 원죄'인 동시에 '존재물이 존재를 떠나 존재를 상실한 존재론적 죄'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신에게 돌아선 사람이 죄인이고, 신을 향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다.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는 길은 회개함으로써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반면 유일신교와 달리 자력신앙인 불교는 회심을 강조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인 앙굴리말라도, 정신지체 장애자인 출라판타카도, 매춘부였던 암바팔리도 모두 회심한 끝에 불법에 귀의할 수 있었다.

회개와 회심은 공통점이 있다. 회개든 회심이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리남'의 마지막 회에서 상여금 대신 단란주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최창호(박해수 분)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강인구의 모습은 인상 깊다. 그는 이미 수리남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삼독심(三毒心)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지족임을 깨달았던 것이리라.

〈소설가〉

社 說

템플스테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2002년 운영을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며 그 의미를 전해왔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템플스테이가 △한국문화 세계화 △국민행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가치 창출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실제 템플스테이는 2009년 OECD에서 '세계의 성공적인 5대 관광상품'으로 선정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각종 연구에서 템플스테이는 성인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 20년을 성공적으로 성장한 템플스테이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유사 템플스테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며, 운영인력들의 전문화도 숙제로 꼽혔다. 나아가 MZ세대와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마케팅도 요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아닌 '종교'로 인식하는 일부 대중들의 편견도 극복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필수다.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에 부쳐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 15주년을 맞았다. 보운조사가 창건(519년)한 금강산 신계사는 역사적으로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으로 소실됐다. 이후 2004~2007년 남한의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남북이 손잡고 복원 불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내금강 장안사 복원까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달으면서 후속과정이 일체 진행되지 못했고 신계사는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매해 연초 "올해는 남북교류의 길이 열려 신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단절상황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금강산 신계사는 단순한 산중 절이나 종교시설물이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 소재 성역화 불사의 상징이고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는 남북 민간교류의 성공적인 사례이자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상징이다. 복원불사 이후에도 남측 스님이 상주하며 북측 스님들과 함께 남북 공통분모인 불교를 통해 통일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신계사 복원 15주년인 올해 역시, 신계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교류가 재개, 남북불교가 함께 만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양측 불교도들의 합동법회와 이산가족 만남 등 새로운 교류 사업을 추진, 한반도 통일의 온풍이 신계사에서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신계사가 남북교류와 화합, 평화통일의 상징인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날이 오길 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법왕과 각국 승왕단이 주관하는 품수의식

국제 합동 보살계 금강계단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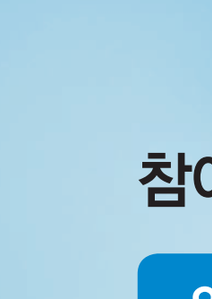
전계대화상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 칠증사 증명단

불조의 법맥 전수 봉행

참여예정국가 :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몽골, 중국, 대만, 일본

일시 : 2022년 11월 12일 (토) 1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관 대강당**

상좌부 최고 상가라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불조의 법맥을 전해받은 수법제자로서 계유과 전통을 이어받아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를 통하여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수지하고자 합니다 법상좌의 수법제자로 四種鉤印(사종구인)하여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부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함께하여 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 고통받는 불우 이웃이 없기를 기원하며 이타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세계 각국 정신적 지도자들이신 법왕과 승왕을 모시고 한국 불교 각종단 큰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요, 중생의 지팡이이신
530여 종단 종정 큰스님, 총무원장 스님
성스러운 법석에 정중히 초대하며 불교 포교에 헌신하신 공로로
스님께 공로훈장을 수여합니다.

– 사전 등록해 주시면 정해진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봉행단 총재 **금당 목탁 대승정** / 봉행추진 위원장 **금강 혜정 대종사** / 조직위원장 **법성, 현담, 대공, 법장** / 심사위원장 **법원, 심오, 법륜, 월산, 월암, 법성, 현경, 송운, 법운, 자운, 정인, 청명, 대도, 백련** / 봉사단장 **박정의, 정영숙,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박정하, 모미숙, 송윤서, 김명옥, 김경실, 황은지, 윤점심, 김미숙, 김유자, 이양순, 이재옥, 이은송, 김나영** / 경호처장 **고동욱** / 의전봉행위원장 **김재은, 이정희, 김수경**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제2회 세계 붓다 평화 봉사대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3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습니다.

법하의 주위에 봉사와 헌신으로 승가 재가자 중
자랑스런 살아있는 보살(봉사대통령)을 추천해 주세요.

*본 협회는 어떤 명목이든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봉사 대상 상패와 훈장 기념품 증정

제출서류 : 봉사자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및 봉사내역, 3개월 미만 여권사진 2매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첨부가 안된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14758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214874 (예금주 :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전화 : 02-733-5665 HP : 010-3618-6061